2020

앙골라공화국 개황

Republic of Angola



외 교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0

앙골라공화국 개황

Republic of Angola



외 교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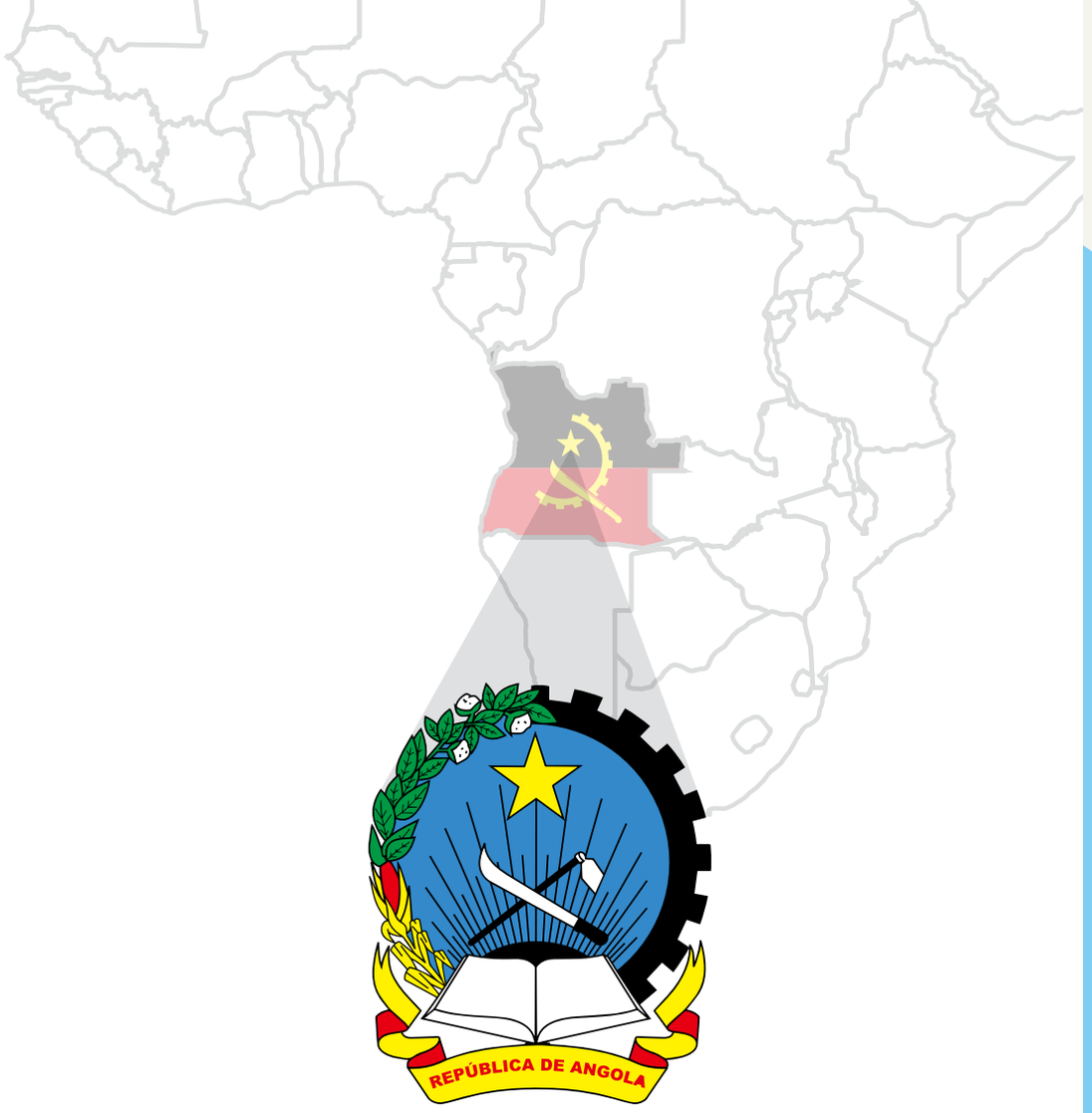


| 앙골라공화국 국기 |

앙골라 국기는 1975.11.11 독립당시 처음 사용되었으며,
해방운동을 주도한 앙골라 인민해방운동(MPLA)의 당기(黨旗)에서 유래

- 적색은 해방투쟁 및 혁명당시 흘린 앙골라인의 피를 의미하며,
- 흑색은 아프리카 대륙을,
- 황색은 나라의 부유함을 상징

국기 중앙의 톱니바퀴는 노동자계급과 공업생산을, 만도(칼)는
농부와 농업생산, 자유를 위한 무장투쟁을, 별은 국제적 연대와 발전을 상징



| 앙골라공화국 국장 |

앙골라 국장은 1990년에 제정되었으며
국장 가운데 반도(칼)과 괭이가 엇갈린 채로 놓여있음
칼과 괭이는 자유를 위한 투쟁과 농민을,
별은 진보를, 떠오르는 태양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



- 위 치 : 아프리카 서남부 대서양 연안 (남위 12˚~ 30˚, 동경 18˚~ 30˚)
- 면 적 : 1,246,700㎢(한반도의 5.6배)



| 앙골라 국가 |

Angola avante

M.R. Alves Monteiro — R.A. Vieira Dias Mingao





| 앙골라 국가 |

포르투갈어

Ó Pátria, nunca mais esqueceremos
Os heróis do quatro de Fevereiro.
Ó Pátria, nós saudamos os teus filhos
Tombados pela nossa Independência.
Honramos o passado e a nossa História,
Construindo no Trabalho o Homem novo,
(repeat previous two lines)

CHORUS
Angola, avante!
Revolução, pelo Poder Popular!
Pátria Unida, Liberdade,
Um só povo, uma só Nação!
(repeat chorus)

Levantemos nossas vozes libertadas
Para glória dos povos africanos.
Marchemos, combatentes angolanos,
Solidários com os povos oprimidos.
Orgulhosos lutaremos Pela Paz
Com as forças progressistas do mundo.
(repeat previous two lines)

CHORUS

영어 번역본

O Fatherland, we shall never forget
The heroes of the Fourth of February.
O Fatherland, we salute your sons
Who died for our Independence.
We honor the past and our history
As by our work we build the New Man.
(repeat previous two lines)

CHORUS
Forward, Angola!
Revolution through the power of the
People!
A United Country, Freedom,
One People, one Nation!
(repeat chorus)

Let us raise our liberated voices
To the glory of the peoples of Africa.
We shall march, Angolan fighters,
In solidarity with oppressed peoples.
We shall fight proudly for Peace
Along with the progressive forces of the
world.
(repeat previous two lines)

CHORUS

CONTENTS

I 개관

1. 일반개관 ····· 012
2. 경제 ····· 018
3. 국내정세 ····· 020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021

II 약사

1. 초기 역사 ····· 026
2. 포르투갈 식민 시대 ····· 027
3. 독립 후 내전 기간 ····· 028
4. 과도적 안정기 ····· 031
5. 총선승리 후 안정기 ····· 032

III 정치

1. 정치제도 ····· 036
2. 국가발전 연혁 및 최근 정세 동향 ····· 041

IV 외교

1. 외교 기조의 변화 ····· 046
2. 주요 외교정책 추진 목표 ····· 048
3. 최근 대외관계 동향 ····· 050

V 경제

1. 경제 개관 ····· 070
2. 인프라 환경 ····· 071
3. 경제 성장률 ····· 072
4. 소비자 물가 ····· 074
5. 수출입 동향 ····· 075
6. 주요 경제정책 ····· 076
7. 정부 재정운용 ····· 079
8. 에너지·자원 현황 ····· 079
9. 한·앙골라 양자관계 현황 ····· 082

VI 군사

1. 군사개요 ····· 090

VII 사회·문화

1. 종족 ····· 094
2. 언어 ····· 094
3. 종교 ····· 095
4. 보건 ····· 095
5. 교통 ····· 096
6. 언론 ····· 098
7. 관광 ····· 100
8. 스포츠 ····· 103
9. 소득 분포 ····· 104
10. 공식 국경일 ····· 105

VIII 한국과의 관계

1. 대한반도 정책 ····· 108
2. 한국과의 관계 ····· 109
3. 교민 및 생활 안내 ····· 115

IX 북한과의 관계

1. 외교관계 ····· 128
2. 주요인사 교류 ····· 129
3. 협력관계 ····· 130

X 참고사항

1. 주요인사 인적사항 ····· 136
2. 앙골라 정부 각료 명단 ····· 138
3. 상주공관 및 재외공관 현황 ····· 139
4. 앙골라 내전 및 평화협상 ····· 140



루안다만 전경



개관

1. 일반개관 012

2. 경제 018

3. 국내정세 020

4. 우리나라와의 관계 021

I 개관

1 | 일반개관

» 국 명 : 앙골라 공화국(Republic of Angola)

» 수 도 : 루안다(Luanda, 833만, 남위 8° 동경 13°)

- 기타 주요도시 : 우일라(Huíla, 235만), 벵겔라(Benguela, 204만), 우암부(Huambo, 190만), 쿠안자 술(Cuanza Sul, 188만)

» 위 치 : 아프리카 대륙 서부 남대서양 연안

- 남위 12°~30°, 나미비아와 콩고 사이, 최북단에 위치한 카빈다(Cabinda)주는 본토에서 분리되어 민주콩고 및 콩고와 인접
- 해안선 약 1,600㎞, 총 국경선 약 5,200㎞
- 북동쪽으로 민주콩고, 동쪽으로 잠비아, 남쪽으로 나미비아와 인접

» 면 적 : 1,246,700㎢(한반도의 5.6배)

» 지 리

- 수도 루안다(Luanda)에서 나미브(Namibe) 지역까지 남북으로 저지대 해안선이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내륙으로 갈수록 고도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고원지대(1,000~1,500m)로 연결되며, 고원지대는 국토의 60%를 차지
- 최고봉은 중부 내륙 지방에 위치한 모코산(Mount Moco, 2,620m)와 메코산(Mount Meco, 2,538m)
- 앙골라의 수자원은 중부 내륙평원에서 발원하여 수 천㎞에 달하는 자이르(Zaire), 콴자(Kwanza), 쿠네느(Cunene), 쿠반구(Cubango), 케브(Queve) 강 등이 수계를 이루어 국토 전역을 관통

» 기 후 : 열대, 온대, 아열대성 기후 공존(우기 : 2~4월, 건기 : 5~10월, 환절기: 11월~1월)

- 카빈다(Cabinda) 지역을 포함하여 북부 지역은 열대성 기후로 연중 고온다습
- 중부 내륙에 길게 펼쳐진 고원지대는 사바나 기후로 북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와 적은 강수량이 특징
- 남부 지역은 인근 칼라하리 사막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건조하나 내륙지방은 집중폭우로 인한 홍수로 큰 피해가 종종 발생
- 남북으로 형성된 긴 해안선 지대는 50~800㎜의 다양한 강수량 분포를 보이며(북쪽으로 갈수록 다습) 중부 지역은 벵겔라(Benguela) 한류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건조
- 수도 루안다 지역은 하계(2~3월) 평균기온 28℃, 동계(7~8월) 평균기온 23℃, 연평균 강우량 400㎜

» 인 구 : 3,080만 명('18, World Bank)[1]

- 연령분포 : 14세 이하(47.83%), 15세~64세(49.87%), 65세 이상(2.3%)
- 인구증가율 : 약 3.3%('18, World Bank)[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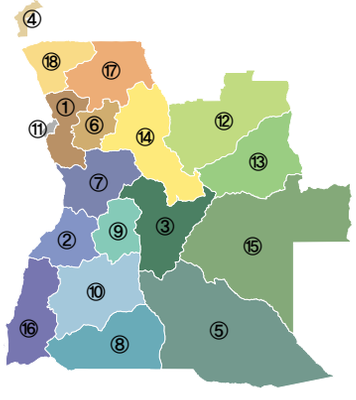
1) CIA World Factbook은 2020.7월 기준으로 3,25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2)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는 동일 연도 평균 2.7%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으며 앙골라는 전 세계 인구증가율 5위를 기록

» 언 어 : 포르투갈어(공용어)

- 오빔분두(Ovimbundu)족은 음분두(Umbundu), 킴분두(Kimbundu)족은 킴분두(Kimbundu), 바콩구(Bakongo)족은 키콩구(Kikongo)를 각기 사용

» 지방정부(18개주)



1. Bengo
2. Benguela
3. Bié
4. Cabinda
5. Cuando Cubango
6. Cuanza Norte
7. Cuanza Sul
8. Cunene
9. Huambo
10. Huíla
11. Luanda
12. Lunda Norte
13. Lunda Sul
14. Malanje
15. Moxico
16. Namibe
17. Uíge
18. Zaire

» 인 종

- 오빔분두(37%)
- 킴분두(25%)
- 바콩구(13%)
- 메스티조(2%)
- 유럽인(1%)
- 기타(22%)

» 종 교 : 천주교 41%, 개신교 38%, 기타 정령신앙자, 이슬람교, 유대교 등 10%, 무교 12%[3]

» 문해율 : 71.1%(CIA)

» 독립일 : 1975.11.11(MPLA, 수도 루안다 점령 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선언)

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2018), Angola 2018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p. 1.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8) 조사 결과, 167개국 중 123위(10점 만점에 3.62)를 기록하여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4]

» 헌 법 : 1975년 독립선언과 더불어 헌법 제정 및 공포

- 1991년, 1994년 헌법 개정을 통해 복수정당제, 국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시장경제원칙 반영
- 2010.1.21 대통령 선출방안을 포함 권력구조(부통령제 신설, 지방분권) 관련 헌법개정안 국회승인

※ 신헌법 주요 개정내용

▷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 도입

- 선호정당에 투표, 각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확보 및 공천 리스트 상 제1순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간선제 도입

▷ 국무총리직을 폐지하고 부통령직 도입

- 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

▷ 대통령 임기를 5년 1회 연임 가능으로 조정(기존 5년, 연임 제한 없었음)

» 국가원수 : 주앙 로렌쑤(João Manuel Gonçalves Lourenço) 제3대 대통령(2017.9.26. 취임)

- 2017.8.23. 총선 결과, 로렌쑤 대통령은 집권여당인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 후보로 총 61.07%를 득표하여 2017-22년 임기의 앙골라 제3대 대통령에 선출
- 한편, 동 선거에서 제1야당인 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합(UNITA)당은 26.67%, CASA-CE당은 9.7%, PRS당은 1.35, 앙골라민족해방전선(FNLA)당은 0.93%, APN당은 0.51%을 각각 득표한 가운데 UNITA와 앙골라 구원을 위한 대단합 선거연합(CASA-CE)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총선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으나, 증거불충분 및 증거자료 조작 혐의로 기각
- 이에 따라, 38년간의 두스 산투스(dos Santos)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종료되고, 후계자로 지목한 로렌쑤 대통령에게 정권 이양

4) 우리나라는 21위(8.00)를 기록하며 완전 민주주의 체제(Full Democracy)

- 한편, 전임대통령인 두스 산투스 대통령은 1979.9월 취임하여 3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 2016.3월 차기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

» 의 회 : 단원제(총 223석, 실제 220석)

- 국회 총의석수는 223석으로 130석은 정당별 비례대표방식에 의해 선출, 90석은 주별 5명씩 18개 주에서 다수투표방식에 의해 선출, 해외거주 국민 몫으로 3석이 포함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선출된 적은 없어 실제 의석수는 220석
- 18세 이상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 임기는 5년
- 1992.9월 총선 이후 2008.9.5 16년만에 총선이 실시,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가 81.6%의 득표로 압승(191석)
- 2017.8.23 총선 결과, MPLA 총 유효투표의 61.07%획득(150석)

※ 2010년 개정된 신헌법에 의거, 220석 모두 정당별 비례대표 방식에 의해 선출, 임기는 5년

주요 정당별 의석 분포

정당명	2008		2012		2017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	81.64	191	71.84	175	61.07	150
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합(UNITA)	10.39	16	18.66	32	26.67	51
앙골라구원을위한대단합-선거연합(CASA-CE)	-	-	6	8	9.7	16
사회개혁당(PRS)	3.17	8	1.7	3	1.35	2
앙골라민족해방전선(FNLA)	1.11	3	1.13	2	0.93	1
신민주주의선거연합(NDEU)	1.20	2	-	-	-	-
기타	2.49	0	0.63	0	0.51	0
합계	100	220	100	220	100	220

※ 자료 : Angola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주요인사(2020.6월 현재)

- 대 통 령 : 주앙 로렌쑤(João Manuel Gonçalves Lourenço)
- 부 통 령 : 보르니뚜 드 소우자(Bornito de Sousa Baltazar Diogo)
- 외교장관 : 떼뜨 안토니우[5](Téte António)
- 국회의장 : 페르난도 두스 산투스(Fernando da Piedade Dias Dos Santos)
- 대법원장 : 조엘 레오나르두(Joel Leonardo)

» 외교노선

- 내전기간 중(1975~2002)에는 구소련 및 쿠바의 지원을 받았으나 내전종식 후 미국 및 유럽 국가 등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전방위 실용외교노선 지향
- 로렌쑤 대통령은 전통 우방(쿠바,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미국, 한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과의 실용적 협력외교 노선을 표방[6]
- **(중국)** 2004년 이후 대규모 차관 도입을 계기로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수립하였으나 현재는 오랜 현물상환 관행 철폐 노력 병행 중
- **(미국)** 1993.5월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꾸준히 관계 증진 모색, 오바마 행정부 취임 직후인 2009.5월 두스 안주스(dos Anjos) 외교장관의 미국 방문으로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2010년 앙골라 정부의 높은 부패 및 자금세탁 수준을 이유로 한 對앙골라 경제제재 부과 이후 다소 냉각기가 있었으나 2019년 양국간 금융 거래 재개 협의, 2020년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앙 등을 통해 관계 개선 노력 중
- **(러시아)** 2009.6월 메드베데프(Medvedev) 러시아 대통령의 앙골라 방문으로 그간 소원했던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로렌쑤 대통령은 2019.10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1회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기조연설을 통해 양국은 세계 평화 및 안보에 있어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 했으며, 에너지·광물·농업·제조업 부문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를 위해 공동의 노력 언급

5) 외교장관 교체(2020.4월)

6) 2017년 9.26 취임 연설에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일본,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등을 주요 협력국으로 거명

- **(기타)** 포르투갈, 브라질 등 포어사용공동체(CPLP)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국가와의 협력을 중시하며 역내 정치적 위상 추구[7]

» **시 차** : GMT+1 (서울보다 8시간 늦음)

2 | 경 제

» **GDP** : 915억불('19, IMF)

» **1인당 GDP** : 3,040불('19, IMF)

» **주요자원**

- 원유, 다이아몬드, 철광석, 시멘트, 목재, 금, 유황, 알루미늄
- 앙골라는 2016년 2, 4분기 및 2017년 상반기에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를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자리를 잠시 차지한 바 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는 나이지리아에 이어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2위를 지속 유지해 오는 등, 원유 부문이 GDP의 37%를 차지

» **주요수출품** : 원유, 다이아몬드, 철광석, 시멘트, 금, 커피, 기계 장비, 수산물, 산업폐기물, 가축 사료 등

» **주요산업** : 석유산업 및 광물산업(약 75%를 차지), 무역업(13%), 농업(7%) 등

7) 2020년 앙골라 루안다에서 포어사용공동체 정상회의 개최

- 2002년부터 오늘날까지 앙골라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경제의 주 수입원이었으며, 그 중 원유는 국가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
- 수출하는 석유의 95%가 원유이며, 정부 재정 수익의 75%를 차지하는 등 앙골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무역규모**('19, IMF) : 600억불

- 수출 : 412억불(원유, 다이아몬드)
- 수입 : 188억불(기계제품, 자동차 등)

» **경제성장률 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9%	15%	11.5%	14%	11.1%	0.8%	4.9%	3.5%	8.5%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5%	4.8%	0.9%	-2.6%	-0.1%	-2.1%	0.3%	2.8%(추정)	

※ 2004-2008년간 두 자리 수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원유가 하락 및 세계 금융위기 영향으로 2014년 이후부터는 경기침체 국면에 돌입

» **실업률**[8] : 29%('19, 앙골라 통계청)

-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1991년~2018년까지 약 25년 간 실업률을 추적해본 결과 평균 16%로 나타났고, 1993년~2014년까지 7%대를 유지했지만, 2015년 24.6%, 2016년 21.1%, 2017년 24.6%, 2018년에는 29.5%를 기록하며 실업률이 대폭 증가

8) 아프리카의 평균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앙골라의 경우 청년 실업률을 제외하고 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함. 국제노동기구(ILO)의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20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실업률은 전년도 5.8%에 비해 소폭 상승한 5.9%를 기록

» 물가상승률

- 2015년 평균 14.3%였던 물가상승률은 2016년 42%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도 29.8%, 2018년 19.2%, 2019년 17.4%를 각각 기록하며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물가상승률은 15%로 전망
-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고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3 | 국내 정세

» 27년간 지속된 내전은 '02.2월 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합(UNITA) 지도자 사빔비(Savimbi) 사망으로 종결되었으며, '02.4월 휴전협정의 체결로 국내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전후복구사업에 총력

» 두스 산투스(dos Santos) 대통령은 1979년 취임후 38년 장기집권기간 동안, 외교 우선순위를 기본 사회 인프라 건설을 위한 국제지원 확보에 두었으며, 주요 산유국으로서 아프리카 역내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

- 2007년 OPEC 가입

» '08.9.5 16년 만에 총선이 실시되어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이 220석 중 191석으로 압승하면서 정치적 안정 강화

» '10.1.21 신헌법이 국회 승인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다수표 획득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간선제 도입

» '12.8.31 총선 결과 MPLA 총 유효투표의 71.84%획득(175석), 신헌법에 따라 두스 산투스(dos Santos)대통령이 간선으로 재 선출되어 '12.9.26 취임

» '17.8.23 총선 결과 MPLA당이 총 유효투표의 61.07%를 획득(150석), 국방장관 출신의 주앙 로렌쑤(João Manuel Gonçalves Lourenço)가 제3대 앙골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7.9.26 취임

» '17.8.23 치루어진 앙골라 평화적인 총선은 두스 산투스(dos Santos) 대통령의 38년 장기집권 이후 이루어진 정권교체로, 주앙 로렌쑤 대통령은 경제다변화 정책을 경제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① 고질적인 부패 척결 ② 경제개혁, ③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④ 외자 유치를 위한 실리적 대외정책 구현 노력

4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 앙골라 정부의 친북정책으로 외교관계가 실현되지 못하다가 1991.5월 말 친소 정부군(MPLA)과 미국의 지원을 받던 반정부군(UNITA)간의 휴전이 성립된 후인 1992.1.6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07.07 주앙골라 한국대사관 개설
- '08.10 주한 앙골라대사관 개설

» 경제관계

- 교 역 량 : 2억 5,270만불('19, KITA)
- 수 출 : 2억 3,600만불(철강제품, 자동차류, 선박 등)
- 수 입 : 1,670만불(석유, 기계류, 기타수산가공품)
- 투자현황 : 17건, 8,742만불('18 누계, 수출입은행)
- ODA현황 : 2억 600만불('87-'19 누계, 아프리카 수원국 중 6위)
- 교민현황 : 100여명('20.1월)

» 주요인사 앙골라 방문

- '04.05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 '10.01 한승주 월드컵유치위원장
- '10.06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 '10.12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
- '11.03.17~18 아프리카경제협력사절단(단장 :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 '12.08 김규현 외교부 차관보
- '15.07 신동익 외교부 다자조정관
- '15.07 국회 앙골라 친선협회(이학재, 이찬열, 진선미 의원)
- '16.07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 '16.09 임성남 외교부 1차관
- '17.03 황인무 국방차관
- '17.12 방위사업청 대표단
- '18.08 한-앙골라 의원친선협회(이혜훈, 김무성, 전현희, 박성종)
- '19.08 한-아프리카 의회외교포럼 대표단(이주영, 오제세, 김성찬, 이동섭)
- '19.09 제1차 한-아프리카 국민외교사절단
- '19.11 헌법재판소 대표단

» 주요인사 한국 방문

- '10.07 Borges 에너지부차관
- '11.01 Jose Vasconcelos 석유부장관(대우조선해양 수주 FPSO 명명식 참석)
- '11.08 Jose Vasconcelos 석유부장관(대우조선해양 수주 LNG 가스수송선 출범식 참석)
- '11.10 Salviano 국방부차관
- '12.05 Chicoti 외교부장관
- '12.07 Joaquim 광물부장관, Valente 상공부 장관, Maria 과학기술부 장관 (여수박람회 참석)
- '12.07 Ana Paula 대통령 영부인(비공식 방한)
- '12.08 Jardim 환경부 장관
- '13.06 Luis Kiambata 대통령외교자문관
- '13.09 Antonio Paulo 공공행정부 차관
- '13.10 Anibal Silva 석유부 차관
- '13.10 Andre Neto 선관위원장
- '15.04 Silva 에너지 수자원부 차관
- '16.02 Sango 해외정보부장
- '16.03 Van Dunem 보훈 장관
- '16.10 Sousa 국토행정부 장관
- '16.12 Lourenço 국방장관
- '17.04 Chicoti 외교장관
- '18.05 Victoria Neto 수산부 장관
- '18.05 Aia-Eza 재무부 차관
- '18.05 Afonso Carlos Neto 국방 차관
- '19.03 Ana Dias Lourenco 대통령 영부인
- '19.08 Paula Francisco 환경부 장관
- '19.10 João Serafim Kiteculo 육군참모총장
- '19.10 Altino Carlos José dos Santos 공군사령관

» 주요 협정

- 한-앙골라 경제과학기술협정('93.7월 체결, '01.1월 발효)
- EDCF 차관 협정('00.2월 체결 및 발효)
-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12.5.25 발효)
- 한-앙골라 국방협력 양해각서('17.3.31 체결)

» '95.10월~'96.12월 한국이 앙골라에 PKO(공병대) 198명 파견

앙골라 군사박물관(Museu da Fortaleza de São Miguel, 루안다 시내 소재) 입구



약사

1. 초기 역사 026
2. 포르투갈 식민 시대 027
3. 독립 후 내전 기간 028
4. 과도적 안정기 031
5. 총선승리 후 안정기 032

II

약사

1 | 초기 역사

»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현재의 앙골라 영토에는 오래전부터 원주민들이 광범위하게 거주하고 있었으나 북쪽으로부터 철기 사용법을 습득한 반투(Bantu)족들이 점진적으로 남하하면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19세기까지 지속

» 현재의 가봉(Gabon)과 콴자강(Kwanza River)에 이르는 지역에 콩고(Congo) 왕국과 그 남쪽으로 마탐바(Matamba) 및 은동구(Ndongo) 왕국 등 세 왕국이 존재하였으며 은동구 왕국이 가장 영향력이 강하였던 것으로 추정



△ 3왕국

• 은동구 왕국의 왕을 은골라(ngola)라고 칭하였는데, 현재 '앙골라' 라는 국명이 여기서 유래


△ Ndongo 왕국–Nginga 여왕

» 1482년 포르투갈인들이 앙골라에 진출하기 시작한 이후, 세 왕국은 협상을 통한 평화공존과 전쟁을 되풀이하면서 생존을 모색하였으나 1495년 포르투갈 왕 John 2세 죽음 이후 대립관계로 전환되면서 1665년 콩고(Congo) 왕국, 1671년 은동구 왕국, 1681년 마탐바(Matamba) 왕국이 차례로 멸망

» 1641~48년 한때 네덜란드가 루안다(현재수도) 지역을 점령하기도 하였으나 1648년 브라질 거주 포르투갈인들의 공격으로 재점령당한 후 포르투갈의 안정적 식민지배가 시작

2 | 포르투갈 식민 시대

» 15세기말 — 포르투갈인 진출(1575년 루안다 건설)하여 주로 노예무역에 종사하였으나, 19세기말까지는 개척 부진으로 지배권 확립에는 실패

» 1700 — 루안다에서 벵겔라(Benguela) 지역 약 200㎞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식민지배가 이루어졌으며 19세기에 들어서서야 내륙지방을 포함한 전 국토에 대한 본격적인 지배 시작

» 1884-85 — 프랑스의 중부 아프리카 지배를 경계하는 영국의 후원으로 베를린 회담에서 포르투갈의 앙골라 지배권 인정

» 1891 영·불과의 협정으로, 여타 포르투갈령 식민지(모잠비크, 기니비사우, 카보 베르데, 상투메 프린시페)와 함께 대략적인 국경선 확정

» 19세기말 중앙정부의 힘이 미약해지자, 노튼드 마토스(Norton de Matos)등 개척자 주도하에 자치행정 실시, 영국자본으로 철도건설 및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 1926-1961 포르투갈에 '살라자르' 정권 성립 후, 적극적인 착취정책 추진(1933년 식민법 발효)

» 1961-1974 1961.2. 대규모 반란 발발 계기로 앙골라민족해방전선(FNLA),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 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합(UNITA) 등 저항세력연대와 포르투갈군간 무력투쟁 계속

3 | 독립 후 내전 기간

» 1974.04 포르투갈 군사 쿠데타로 '카에타노' 식민정권이 붕괴됨에 따라 앙골라 독립 허용

» 1975.01 앙골라 과도정부 수립[9)]

» 1975.07 MPLA와 FNLA-UNITA 연합 세력간 내전 발발, 소련, 쿠바, 동구 제국은 MPLA를 지지함으로써 국제전으로 발전

9)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 앙골라민족해방전선(FNLA),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합(UNITA) 3개 독립운동단체 대표 참여

» 1975.11 쿠바군 지원에 힘입은 MPLA가 루안다 점령 후 전격적으로 독립선언(11월 11일을 독립기념일로 지정)

» 1977.03 쿠바 및 앙골라 후원하에 UNITA를 지원하는 자이르(모부투 정권)를 침공함으로써 앙골라-자이르간 관계 악화

» 1978.07 앙골라-자이르 수교

» 1979. 중반기 남아공의 남부 앙골라 국경 침공 격화

» 1984.02 앙골라-남아공간 휴전협정 체결

» 1985. 하반기 대 UNITA 공세 강화

» 1986.03 남아공 정부, 나미비아 독립을 위한 총선 일자(1986.8)를 제시[10)]

» 1986.09 두스 산투스 대통령, 미국과 수교 희망 표명

» 1987.09 두스 산투스 대통령, 포르투갈 방문

» 1988.07 앙골라 평화협상 뉴욕에서 개최(쿠바, 앙골라, 남아공)

» 1988.12 서남아프리카지역 평화협정의정서 체결(앙골라, 쿠바, 남아공)

» 1990.04 MPLA-UNITA간 제1차 직접 평화실무협상 개최(포르투갈 에보라)

» 1990.06 MPLA-UNITA간 제2차 실무협상 개최(리스본 근교)

10) 단, 앙골라 주둔 쿠바군 철수 계속 주장

» 1991.05 MPLA-UNITA간 리스본 평화협정 체결

» 1992.09 유엔 감시하 최초 다당제 체제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실시 결과, MPLA의 두스 산투스 대통령이 1차 선거(49% 획득)에서 승리

» 1992.10 UNITA 대통령 후보 사빔비 선거 결과에 불복, 2차 선거 참여 철회

» 1992.12 UNITA의 불참으로 MPLA 및 기타 군소정당 연합으로 새 공화국 출범

» 1993.05 미국(클린턴 행정부)은 과거의 정책을 변경해 MPLA 정부를 정식 승인

» 1994.11 MPLA와 UNITA간 루사카 평화협정 체결

» 1995.02 UN 안보리, 루사카(Lusaka)협정 감독을 위해 평화유지군(UNAVEM-Ⅲ) 파견 결의

» 1995.05 두스 산투스 대통령, 사빔비(Savimbi) UNITA 반군 지도자와 회담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개최

» 1995.08 두스 산투스 대통령, 사빔비(Savimbi)와 가봉에서 2차 회담 개최

» 1996.03 두스 산투스-사빔비간 회담이후 통합군 구성 및 연립정부수립 합의

» 1996.12 UNITA측, 통합군 참여 및 7만명 동원 해제

» 1997.02 사빔비 UNITA의장에 제1야당 당수로의 특별지위 부여에 합의

» 1997.04 연립정부가 구성되었으나 UNITA측의 협정 불이행 등 비협조로 정세불안 지속

» 1997.06 정부군과 UNITA간 교전으로 사상자 100여명 발생

» 1998.01 UNITA측 98.2.28까지 루사카 협정 이행 약속

» 1998.08 앙골라 정부는 루사카 협정 불이행을 이유로 연합정부내 UNITA 세력을 축출

» 1998.12 양측간 전투 재개

» 1999.10 정부군이 UNITA 반군 주요 거점도시인 안둘루(Andulo) 및 바일룬두(Bailundo)를 탈환, 앙골라 남부 국경지역을 대부분 장악

» 2000. 정부군이 앙골라 전역의 90%이상 회복, UNITA 세력은 거의 궤멸 상태로 잠비아 국경지대인 동부 정글지역으로 퇴각, 산발적인 게릴라전을 전개

» 2002.02 UNITA 지도자 사빔비의 사망후 UNITA 병력의 결정적 약화

4 | 내전 종식 후 국가 재건기

» 2002.4 휴전협정 체결[1)](UNITA 병력해산 및 제도권으로의 흡수 추진)

» 2005 국회, 선거법 제정

1 1) 27년간(1975~2002)의 내전으로 150만명의 사망자와 400만명의 난민 발생

» 2006.4.5 두스 산투스 대통령, 2007년 말까지 대통령선거 실시 공약(미실시)

5 | 총선승리 후 안정기

» 2008.09 16년만에 총선이 실시되어, MPLA가 압승(220석 중 191석)함으로써 정국이 안정화

» 2008.10 정부 개각 단행 후 UNITA소속 일부 각료를 MPLA소속으로 전면 교체

» 2009.04 국회내 헌법개정위, 헌법개정 작업 추진

» 2010.01 신헌법 개정(안) 국회 승인

» 2012.08 총선 결과, MPLA 총 유효투표의 71.84%획득(175석)

» 2012.09 두스 산투스 대통령 재취임/국회 개원 및 의장단 선출

» 2017.08 총선 실시 및 로렌쑤 신임 대통령 선출

» 2017.09 로렌쑤 대통령 앙골라 제3대 대통령 취임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왼쪽)과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정치

1. 정치제도 036

2. 국가발전 연혁 및 최근 정세 동향 041

III

정치



1 | 정치제도

» 헌법

- 1975.11.11 독립선언과 더불어 헌법 제정 및 공포
- 1978.01.07 제1차 개정
- 1980.08.11 제2차 개정
- 1991.03.06 제3차 개정
- 1992.08.26 제4차 개정[1)]
- 2010.01.21 대통령 선출방안을 포함 권력구조(부통령제 신설,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안) 국회승인

» 신헌법 주요 개정내용

-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 도입
  - 선호정당에 투표, 각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확보 및 공천 명단상 제1 순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간선제 도입
- 국무총리직을 폐지하고 부통령직 도입
  - 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
- 대통령 임기를 5년 1회 연임 가능으로 조정(기존 5년, 연임제한 없었음)

» 대통령

- 간선제
  - 선호정당에 투표, 각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확보 및 공천 명단상 제1 순위가 대통령으로 당선
- 로렌쑤 대통령(제3대)
  - 두스 산투스 대통령의 38년 장기 집권을 끝으로 2017.8 총선 승리로 신임 대통령 당선

» 행정부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 부통령이 28개의 정부 부처 장관(3명의 무임소 장관 별도) 및 50명의 차관으로 이루어진 내각(Cabinet)을 구성
- 국방·보훈부/외교부/농·수산부/산업·통상부/광물·석유가스부/공공사업·국토기획부/정보통신기술·방송부/문화·관광·환경부/재무부/경제기획부/여성가족부/국토행정부/교육부/에너지·수자원부/교통부/내무부/고등교육·과학기술혁신부/보건부/유소년·체육부/법률인권부/공공행정·노동·사회보장부
- 지방 : 대통령이 18개 행정구역[2)]을 관할하는 주지사를 임명

» 입법부

- 단원제
  - 의원수는 220명(130명은 정당별 비례대표방식에 의해 선출, 90명은 주별 5명씩 18개 주에서 다수투표방

1) 앞선 4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복수정당제, 국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시장경제원칙 등을 반영

2) Province,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 및 164개 시(Municipality)

식에 의해 선출)

- 18세 이상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
- 선거는 5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내전상태 지속으로 인해 2008.9.5., 1992년 이후 16년 만에 총선이 실시, MPLA가 81.6%의 득표로 압승(220석 중 191석)
- 2012.8.31 총선 결과, MPLA 총 유효투표의 71.84%획득(175석)
- 국회의장 : 페르난도 두스 산투스(Fernando da Piedade Dias dos Santos)

※ 2017.9월 앙골라 국회는 『제4대 앙골라 국회를 개원하고, 신임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기존, 현 국회의장이 연임에 성공

- 2017.8.23 총선 결과, MPLA 총 유효투표의 61.07%획득(150석)

사법부

- 헌법재판소, 대법원, 감사원, 최고군사법원, 각 시(Municipality)마다 하급심 재판소 설치
  - 헌법재판소장 : 마누엘 미구엘 다 코스타 아라곤(Manuel Miguel da Costa Aragão)
  - 대법원장 : 조엘 레오나르두(Joel Leonardo)
- 법원의 조직, 구성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함(판사는 대통령이 임명)
- 법조 인력 중 40% 만이 법학교육과정 이수 등 자격증 보유
- 평균 소송 기간이 1,011일로[3] OECD 기준의 4배에 달해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
- 2019.3부터 민사부 및 형사부 등 사무분담 개선을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지방법원(Tribunal Provincial)의 명칭을 Tribunal de Comarca로 변경하고 기존 18개의 운영체제에서 60개 운영체제('20 전체 완공 예정)로 대체하고 있으며, 기존 18곳과 신규 증설된 14곳* 지방법원까지 총 32개가 정상 운영

  * Benguela(Benguela州) Lobito(Benguela州), Lubango(Huila州), Caconda(Huila州), Cuanhama(Cunene州), Soyo(Zaire州), Mbanza Kongo(Zaire州), Caxito(Bengo州), Dande(Bengo州), Cambambe(Cuanza-Norte州), Cazengo(Cuanza-Norte州), Gabela(Cuanza-Sul州), Cela(Cuanza-Sul州), Amboim(Cuanza-Sul州)

3) OECD 기준의 4배에 해당

정 당

- **MPLA**(People's Movement for the Liberation of Angola, 앙골라인민해방운동 : 여당)
  - 창설 : 시인이자 정치인인 아고스티뉴 네투(Dr. Agostinho Neto)가 1956년 소련의 일당 시스템을 모방하여 창당
  - 현총재 : 로렌쑤 현 대통령
  - 1962년 네투가 MPLA 초대 의장으로 취임한 후 對 포르투갈 무장 게릴라 활동 개시
  - 1977년 마르크스-레닌 이데올로기를 공식적인 당의 정강·정책으로 채택
  - 1979년 네투 대통령 사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두스 산투스 대통령은 점진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실용주의 노선으로 완화
  - 2008.9.5 총선 결과 총 640만 유효투표 중 81.6%를 득표, 압승을 거둠에 따라 선거전 129석에서 191석으로 확대되었으나, 2012.8.31 총선 결과, 유효투표의 71.84% 획득하여 175석으로 16석 상실
  - 2017.8.23 총선 결과 총 709만 유효투표중 61.07%를 득표, 150개 의석 확보



△ MPLA 정당 마크

- **UNITA**(National Union for the Total Independence of Angola, 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합 : 제1야당)
  - 창설 : 1966년 사빔비(Jonas Malheiro Savimbi)가 FNLA에서 탈퇴, 창설
  - 의장 : 이자이아스 사마쿠바(Isaias Samakuva)
  - 1975년 수도 루안다 지역에서 패퇴하자 미국 및 남아공의 후원 하에 중부 내륙지방 우암부를 거점으로 맹렬한 반정부 게릴라 활동 전개
  - 1986년 사빔비는 백악관 초청으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MPLA에 대해 활발한 저항
  - 사빔비가 92년 총선 결과에 불복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무장 게릴라 활동을 지속하자 93.5월 미국은 UNITA 지지를 철회하고 MPLA 정부 승



△ UNITA 정당 마크

인(공식적인 미-앙골라 외교관계 수립)

- 2002.2월 사빔비 의장의 사망 후 세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되어 정치 제도권으로의 합류 모색
- 2008.9.5 총선에서 UNITA는 군소정당과 연계하며 현 행정부의 부패와 부의 불균등을 집중 비판, 공세를 취하였으나 10.4%의 득표를 하는데 그쳐 선거전 70석에서 16석만을 유지한 군소정당으로 전락, 영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으나, 2012.8월 선거에서 18.7%의 득표율을 얻어 32석을 획득함으로써, 영향력을 일부 회복
- 2017.8.23. 총선에서 UNITA는 26.67%의 득표율로 의회에서 51석을 확보
- 2019.11.13-15간 개최된 「제13차 전당대회」에서 아달베르토 코스타 주니오르(Adalberto Costa Júnior)를 제3대 신임 당 총재로 선출

• **CASA-CE**(앙골라 구원을 위한 대단합-선거연합)

- UNITA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수 아벨 시부쿠부쿠(Abel Chivukuvuku)가 UNITA 당수 선거에서 현 이사야 사마쿠바(Isaias Samakuva)의장에게 패배하자 이에 반발하여 UNITA를 탈퇴한 후 창당
- 2012.8월 총선에서 6%를 득표하여 의회에서 8석을 확보함으로써 제3당의 입지를 확보
- 2017.8월 총선에서 9.44%를 득표하여 의회에서 16석을 확보



△ CASA-CE 정당 마크

• **PRS**(Social Renewal Party, 사회개혁당)

- 2008.9.5 총선 결과, 군소정당의 하나였던 PRS가 선거 전 6석에서 8석으로 미미하나마 약진을 하는 듯하였으나, 2012.8월 선거에서 단지 1.7%의 득표율을 획득하여 3석만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대부분 상실
- 2017.8.23 총선 결과, PRS당은 1.35%의 득표율로 의회에서 2석 확보

• **FNLA**(National Front for the Liberation of Angola, 앙골라해방인민전선)

- 창 설 : 1961년
- 의 장 : 올든 호베르투(Holden Roberto)
- 1960년대 중국의 지원 등에 힘입어 UNITA와 연합전선을 형성,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MPLA에 대항하며 초기에는 위세를 떨쳤으나 연속적으로 전투에서 패배함에 따라 세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으며 92년 총선 실시 이후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무장 항쟁 노선 포기
- 2008.9.5 총선 결과, 종전 5석에서 3석으로 축소되고, 2012.8월 선거에서는 2석 확보, 2017.8월 총선에서는 1석으로 축소


△ PRS 정당 마크

• **FLEC**(Front for the Liberation of the Enclave of Cabinda, 카빈다 해방전선)

- Lubota 지도하에 1963년 창설, 카빈다 분리 독립을 위해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정부의 강온양면작전에 의해 세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2006.8월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카빈다 지역에 특별지위 부여
- 이후 강경·온건파로 분열양상을 보이던 FLEC는 2010.1.8 앙골라 개최 아프리카배 축구대회(CAN) 참가를 위해 카빈다 지역으로 입국하던 토고 국가대표팀 버스에 총격 테러를 감행, 3명이 사망하는 사태 발생


△ FNLA 정당 마크

2 | 국가발전 연혁 및 최근 정세 동향

가. 독립과 내전, 불안정한 초기국가 수립단계(1975~2002)

• 독립투쟁(1961~1975), 내전(1975~2002) 등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전쟁으로 인해 식

민지 시대 구축되었던 모든 기간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전국토가 황폐화된 상태에서 앙골라는 전후복구사업과 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

- 1979.9월 네투 대통령 사망 후, 중도파에 속했던 두스 산투스가 대통령직 승계
- 두스 산투스 대통령은 소련식 사회주의 노선에서 탈피,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하면서 UN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도하였으며 1993.5월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대외적 안정 기반 구축
- 2002.2월 UNITA 지도자 사빔비의 사망으로 UNITA가 결정적으로 약화되어 정치적 제도권에 편입됨으로써 권력기반 더욱 공고
- 두스 산투스 정부는 내전상황 등을 이유로 92년 이래 총선(헌법상 4년마다 실시)을 연기하여 오다가, 2002.4월 평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2004년 총선 실시를 선언하였으나 유권자 등록 작업상의 기술적 문제 등의 사유를 들어 총선을 수차례 연기

나. 내전 종식 후 국가 재건기(2002~2008)

- 2002.4월 내전 종식 이후, 앙골라 정부는 난민 재정착과 전후 복구사업 등을 통한 정상적인 국가체제 수립을 위해 노력
- UNITA측에 일정 장관 및 차관직을 배분함으로써 정치안정을 위한 권력분점을 도모
- 본격적인 석유 증산에 힘입어 수년간 15~20%에 달하는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막대한 자금을 축적하는 등 최대 호황을 구가하며 사회 인프라 건설 등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석유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한계에 봉착
- 앙골라는 2008.9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압도적 승리를 계기로 두스 산투스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아래 안정적인 정국 운영과 더불어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

다. 정국 안정기(2010~2017)

- 2010.2.8 두스 산투스 대통령은 헌법 개정 이후 집권 3기의 새로운 출범을 맞아 신임내각 명단 발표
  ※ 2010.2.8 개각 주요 내용
  - 신헌법에 의거 부통령(Vice-President) 임명
  - 부통령으로는 페르난도 두스 산투스 국회 의장이 임명
  - 국방부 장관 포함 총 7개 부처 장관 교체, 10개 부처의 명칭 변경
- 차기 대통령 선거가 당초 2009년 내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헌법 개정으로 2012년으로 연기
- 2012.8.31 총선, 대선 실시로 MPLA 총 유효투표의 71.84%획득하여 압도적으로 여당이 됨에 따라 신헌법에 의거 두스 산투스 대통령이 재선출되어 9.26 취임하고 9.30 부분 개각 실시
  - 내무장관 포함 총 6개 부처 장관 교체, 9개 부처 명칭 변경 및 신설
- 2017.8.23. 총선으로 MPLA당이 총 유효투표의 61.07%를 획득(150석)하고, 국방장관 출신의 로렌쑤가 앙골라 제3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2017.9.26 취임

라. 신임 대통령 하의 개혁기(2018~현재)

- 신임 로렌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① 고질적인 부패 척결 및 ② 경제개혁, ③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④ 외자 유치를 위한 실리적 대외정책 시현 중
  -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성 강화 노력 중으로 족벌주의 타파 목적의 잦은 인사를 단행하고 있으며, 두스 산투스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 적발을 위한 사법 수사 진행 중
  - 국민 생활의 질 향상 목적으로 대대적인 사회 인프라 개선 작업을 시작, 2019년까지 935㎞에 달하는 1차 도로망과 200개의 아스팔트 도로, 28개의 교량 재건



한-앙골라 국장급 정책협의(2019년 8월 , 요코하마)



외교

1. 외교 기조의 변화 046

2. 주요 외교정책 추진 목표 048

3. 최근 대외관계 동향 051

IV
외교



1 | 외교 기조의 변화

가. 전통 우방국 중심의 동맹 외교

» 1975.11월 루안다 점령에 성공한 후 전격적으로 독립을 선포한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 정권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여전히 강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합(UNITA)-앙골라민족해방전선(FNLA) 연합 반정부 세력 및 이들을 지원하는 미국, 남아공, 자이르(현 민주콩고), 잠비아, 우간다, 토고 등 주변 국가들에 대항하기 위해 소련,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고한 전략적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외교노선 유지

나. 탈냉전과 비동맹 외교

» 90년대 들어 탈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의 해체, 동구권의 몰락, 쿠바의 경제적 침체 등으로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1991.3월 헌법을 개정, 국호를 앙골라인민공화국에서 앙골라공화국으로 변경, 탈 이데올로기 노선을 공표하였으며, 1993년 출범한 클린턴 미 행정부가 1993.5월 앙골라 정부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탈 이데올로기, 실리추구 노선을 강화

- 러시아, 쿠바 등 전통적 우방국가로부터의 군사적 지원은 지속

다. 내전 종식 후 실리외교로의 전환

» 2002.4월 내전 종식 후 앙골라 정부는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적 지원 확보와 2007년 OPEC 가입 등 주요산유국으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대외적 위상 확보를 위한 실리외교에 치중

» 국가 재건을 위한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파리클럽(Paris Club)으로부터의 차관 도입, 외국인직접투자 및 국제기구기금 유치 증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IMF와 경제 정책 등에 대한 개혁프로그램에 대해 협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

» 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합(UNITA)를 적극 지원하고 앙골라를 침공하는 등 적대관계에 있던 남아공의 새로운 정권 출범을 계기로 양국간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2005년)을 체결하는 한편, 아프리카 대륙을 전략적 기반으로 삼으려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크게 강화하고, 브라질, 포르투갈, EU, 인도, 이스라엘, 러시아 등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외교 다변화 노력 전개

» 정치 안정 및 경제 발전으로 인한 자신감 증대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국의 역할과 위치를 확보

라. 경제발전을 위한 전방위 실리외교

- 사회기간시설 건설을 위해 수십억불 상당의 대규모 차관을 집중지원하는 중국과 경제측 측면에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증진, 강화하기 위해 노력
  - 주중국 앙골라대사관에 무관부를 신설하는 등 국방분야 협력도 증진
- 미국은 서민용 주택 및 학교 건설, 말라리아 및 AIDS 질병퇴치, 지뢰제거 등 인도적 차원의 대 민간분야 집중 무상지원 및 상업차관 제공을 통해 앙골라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니만 연안을 중심으로 해상에서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 특히, 로렌쑤 대통령은 국방장관 재직시 2017.5.16-18간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미국-앙골라 국방장관 회담, ▲국방협력 MOU 체결 및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 라운드테이블 등의 일정

    당시, Matis 미국 국방장관은 양국 국방 협력 MOU체결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위한 첫 발걸음(the first steps toward a strategic partnership)을 내디뎠다고 평가
- 로렌쑤 대통령은 2017년 9.26 취임 연설에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일본,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영국 등 12개국을 앙골라의 주요 협력국으로 거명하고, 경제외교를 정부의 중점 과제로 삼고, 기존의 공산권 국가와의 전략적 관계 외에도 경제 발전을 위한 실리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투자 유치 및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 유럽, 중동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 확대

2 | 주요 외교정책 추진 목표

가. 국제사회에서의 체제 정통성 확보

» 2008.9.5 총선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큰 전환점으로 총선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을 대외적으로 홍보토록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정통성 인정을 최우선 외교목표로 설정

» 2019년 12월, 아우구스투(Augusto) 앙골라 외교장관은 로렌쑤 행정부의 외교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외교 정책 목표에 대해 브리핑하며, 경제 외교 및 국제 사회 내 입지 강화를 앙골라 외교의 주요 목표로 설정
- 동 장관은 앙골라가 지정학적 위치, 경제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New Angola'의 새로운 이미지를 아프리카 대륙 및 전 세계에 투영하고 있다고 언급

나. 무역 및 투자유치증진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 사회 인프라 건설, 일자리 창출 및 국민 기초복지 증진을 위해 무역 및 외국인 투자유치 증진을 목표로 하는 대외 환경 조성을 주요 외교목표 중 하나로 설정
- 경제다변화 목표 하에 ▲2018-2022 국가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에너지·도로·항만·통신 등 인프라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 ▲여타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국내 비즈니스 환경 및 신뢰성 개선 등을 위해 노력 중

다. 아프리카 역내 및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강화

» 두스 산투스 행정부는 석유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급성장과 총선 이후 보다 확고해진 국내 정치의 안정세를 토대로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지역내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치를 활용, 역내 분쟁 해결에 일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프리카 역내 및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을 제고

» 로렌쑤 행정부는 이에 더해 CPLP(포르투갈어사용국공동체), CHOGM(영연방정상회담) 회의, OIF(프랑스어권국제기구) 내 활동 확대 노력을 경주 중이며, 특히 지속적으로 SADC(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및 AU(아프리카연합) 내 앙골라 외교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특히

평화적 중재자 역할을 강조

- 앙골라는 2014-2017년간, 1회 연임을 통한 총 4년간의 대호수지역국제회의(ICGLR) 의장직을 수임하며 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가[1] 안보와 평화 정착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 중
- 로렌쑤 대통령은 2019.8월 앙골라에서 앙골라·민주콩고·르완다·우간다 4자 정상회담을 실시했으며, 해당 회담에서 우간다 및 르완다 정상은 양국간 긴장 조성 행위를 자제하고 국경 재개방에 합의하는 협정에 서명
- 2020.2월 앙골라에서 개최된 앙골라·민주콩고·르완다·우간다 4자 정상회담을 통해 협정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점검

» 또한, 로렌쑤 대통령은 2017년도 시정연설에서 민주콩고의 불안정한 정세에 우려하며, 이해 당사자들간 조속하고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국가 안정을 되찾아 민주콩고가 아프리카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

3 | 최근 대외관계 동향

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

» 현재 앙골라는 2018년 기준 아프리카 내에서 중국의 제2위 교역대상국(1위 남아공, 3위 나이지리아)이며 중국은 앙골라 내전이 종료된 2002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사회인프라[2] 건설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대규모 차관을 제공함에 따라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한바 있으나, 현재 앙골라는 중국과의 경제적 측면에서 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국가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오랜 원유 담보 부채[3]상환 대출 관행 철폐 노력도 병행 중

- 중국은 앙골라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제1단계 사업으로 50억불 상당의 대규모 차관 제공을 통해 지난 수년간 도로, 항만, 철도, 학교, 병원 건설 등 사회인프라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한 이후 제2단계 사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농업분야를 선정, 내전으로 황폐해진 농업기반을 복원토록 추가 차관 제공
- 한편, 중국은 앙골라 거주 중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 및 외환 거래를 위해 2017.6.5. 중국은행(Bank of China)1호점을 앙골라 루안다에 개설

나. 미국과의 우호협력관계 강화

» 냉전시대 미국은 앙골라 정부와 군사적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석유 메이저 업체들에 의한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분야에서의 제한적인 협력관계는 유지

» 1993.5월 외교관계 수립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미측 국방부 고위 인사가 잇달아 앙골라를 방문하고 대서양 연안 전략적 요충지 Lobito항에 미 해군함대가 기항하는 등 미국과 국방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증대

» 특히, 두스 산투스 외교장관이 2009.5월 워싱턴을 방문, 클린턴 국무장관과 경제위기 극복 지원 및 군사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무역 및 투자협정 등에 서명함으로써 그간 정치적으로 다소 소원했던 관계를 일신하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 2010.7월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 대화(Strategic Partnership Dialogue) 개최에 합의, 협력관계를 강화

1) 앙골라, 우간다, 콩고공화국, 민주콩고, 케냐,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및 잠비아 등

2) 2019년 상반기 기준 26만명의 중국 근로자들이 앙골라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은 역내 인프라 개선(철도 2800킬로, 도로 20,000킬로, 주택 10만호, 학교 100개, 병원 50개)에 기여

3) 2018년 기준 앙골라는 총 원유 수출량 5억 1700만 배럴 중 3억 3,600만 배럴을 중국으로 수출하며 대중국 원유 수출국 1위를 차지

-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4.12월 Chikoti 앙골라 외교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Kerry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실시

• 다만, 2010년 앙골라 정부의 부패 및 자금세탁을 이유로 對앙골라 경제제재 부과 이후 냉각기가 이어져오다, 2019.3월 Sullivan 국무부 차관 방앙을 계기로 미국은 對앙골라 금융 거래 재개 협의를 발표 했으며, 2019.8월 Augusto 외교장관 방미를 통해 미국의 대앙골라 적극 투자호소 하는 등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

- 양국간에는 군사·치안 분야의 협력도 확대되는 추세이며, 2019.7월 양국간 치안협력협정이 체결[4], 2019.8월에는 미 육군방공학교대표단이 방안, 양국간 군사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
- 그 밖에 미국 정부는 앙골라 내 말라리아, 소아마비, HIV/AIDS 방지를 위해 2019년 기준 3,400만불 투자 중

• 2020.2월 Pompeo 국무장관 방앙 계기, 동 장관은 로렌쑤 행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양국간 협력 확대의지를 대내외에 천명

- Pompeo 장관은 Chevron社가 포함된 컨소시엄의 앙골라 천연가스 분야 2억불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600억불 예산의 美 국제개발금융공사(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를 통해 앙골라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언급

다. 기니만협의체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통한 대외적 위상 강화

» 앙골라는 2008.11월 기니만 협의체(CGG) 제2차 정상회의를 주최, 의장국인 앙골라 두스 산투스 대통령을 비롯한 8개국 정상들이 참석하여 세계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처 방안 및 민주콩고 사태 등 역내문제에 관해 협의

» CGG 회의 주최를 계기로 앙골라는 유가 급락 등 위기상황에 대비, 지역 국가간의 단합과 결속을 통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석유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매개체로 향후 보다 공고한 지역연합체[5]로 발전시켜 나가야함을 역설하는 등 역내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

• 2012.11월, 앙골라 외교부가 CGG 평화안보회담 개최, 회의 결과로 회원국 간의 정치·경제 협력과 해양 안전을 위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니만의 평화안보에 관한 루안다 선언'을 채택

라. 다양한 국가들과의 경제 외교 확대 노력

» 외자 유치 및 투자 확보를 목적으로 대일, 대중동 외교가 활발해지는 등 외교 지평을 확대중

• 2019.1월 앙골라 대표단 방일(금융협력협정 및 무역보험공사와의 협력협정을 체결), 2019.5월 일본 외무대신 방앙(180만불 규모의 사회 경제 개발 프로그램 무상원조지원 협정 체결)에 이어 2019.10월 앙골라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간 기술 및 경제협력협정이 체결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진행 중이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나미브항 신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에 6억불 투자 지원, 도요타사의 자동차 정비사 육성 아카데미 설립 계획 등이 발표

• 2019년 UAE는 앙골라내 20억불 규모 트랙터 공장 건립, 전력 생산 프로젝트, 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 및 농업 협력 사업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소난골(앙골라 국영석유기업)과 6억불 규모 연료 비축시설 건립에 대한 MOU를 체결

4) 참고로 현 Lourenço 대통령은 국방장관 재직시 2017.5.16-18간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 미국-앙골라 국방장관 회담, ▲ 양국 국방협력 MOU 체결 및 ▲ Atlantic Council 라운드테이블 등의 일정을 가지고 양국간 국방협력 MOU를 체결함. 당시, Matis 미국 국방장관은 양국 국방 협력 MOU체결을 통해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 구축을 위한 첫 발걸음(the first steps toward a strategic partnership)을 내디뎠다고 평가한 바 있음

5) 대서양 연안 8개국으로 구성된 CGG 협의체는 전세계 석유 생산량의 15%를 점유하고, 석유 추정매장량 기준 중동지역에 이어 세계 제2위이며, 아마존 지역 다음으로 풍부한 수자원 및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구 약 2억 5천만의 지역연합체로서 잠재적 성장가능성은 크나 현재로서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느슨한 연합체

마. CPLP(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 국가들 간의 협력 증진



△ CPLP

» 2009.4월 상투메 프린시페에서 개최된 제1차 CPLP 통합의회 모임에 참석, 공동헌장 채택 등 향후 발전 방향 등에 관하여 협의
- CPLP 공동 의회 설립은 포어 사용권 국가(브라질, 포르투갈, 상투메 프린시페,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동티모르, 앙골라, 모잠비크 등)들 간에 결속을 강화하고 EU식의 의회 창설을 목표로 1998년 이후 논의되어 왔으나 별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2009년 제1차 통합의회 개최

» 2009.5월 앙골라에서 CPLP 국방장관간 회의가 개최되어 CPLP 국가간 국방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방안 및 역내 테러리즘 대책에 대해 논의

» 2011.3월 앙골라에서 제11차 CPLP 노동/사회분야 장관급회의 개최,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적 통합,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CPLP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루안다 선언' 채택

» 2011.7월 제16차 CPLP 외교장관회의가 루안다에서 열렸으며, 총8개국[6] 외교장관 참석
- 본 회의는 국제질서 유지에 있어 UN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기구 내에서의 CPLP 회원국들의 위상강화 및 유엔 안보리 참여문제 등을 집중 토의

» 2011.11월 Passos Coelho 포르투갈 총리는 앙골라를 공식 방문해 두스 산투스 앙골라 대통령을 방문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재확인
- Coelho 총리는 포르투갈이 직면한 경제위기 대처 방안의 일환으로 앙골라와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언급
- 이에 두스 산투스 대통령은 앙골라는 포르투갈의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상부상조할 것이라 밝혔으며, 양국의 협력관계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2014년 열린 앙골라 제2차 정기 국회 개원 및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두스 산투스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기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AU, SADC, CEAC(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CPLP 등 국제기구 및 지역 기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 하지만, 두스 산투스 대통령은 최근 포르투갈과는 그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양국 간 추진되어오던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과 전략 파트너십 보류가능성 언급

» 2014년 루안다에서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 정상회의 및 SADC-대호수지역 정상회의(ICGLR) 장관급 회의가 연달아 개최
- 앙골라,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모잠비크, 상투메 프린시페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 정상 회의가 열렸으며, 동 회의에서 정상들은 두스 산투스 대통령을 2014-16년간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 정상회의 의장으로 선출
- 본 회의에서 정상들은 회의체의 효율성 강화와 회원 국 간 이익 증진을 위해 CPLP를 국제기구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앙골라는 의장직 수임을 계기로 회원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동 회의체의 제도 개편에 주도적 역할 기대
- 정상들은 해당 회의체가 CPLP의 자매 회의체의 성격이 아닌, 아프리카역내 포어 사용국가의 이해관계 및 아프리카 지역 문제에 대한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역할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 합의
- 아프리카 국가들의 단결과 지역문제를 아프리카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 주장

» 2015.7월 양자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며, 러시아 흑해 함대 소속 함정이 앙골라 루안다 항에 정박하여, 양자간 군사 및 기술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

6) 앙골라, 브라질, 카보베르데,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포르투갈, 상투메 프린시페, 동티모르

» 앙골라는 2018.7월 카보베르데에서 개최된 「제12차 CPLP 정상회의」에서 2020-2022 동안 의장국으로 선출

» 이후 앙골라는 2019.5월 「제19차 CPLP 국방장관 회의」, 2019.7월 「제9차 CPLP 의회 총회」 등을 루안다에서 연속 개최하는 등, CPLP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0.7월 「제13차 CPLP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카보베르데로부터 CPLP 의장국 수임 예정

» 2020.7월 「제13차 CPLP 정상회의」개최를 통해 카보베르데로부터 CPLP 의장국을 수임받을 예정

- 2020.5월 Francisco Ribeiro Telles CPLP 사무총장은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앙골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제13차 CPLP 정상회의를 내년 7월로 연기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 현 의장국인 카보베르데가 의장국 지위를 지속 유지하기로 결정

바.쿠바 및 러시아 등 전통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쿠바]

»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두스 산투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9.2월 앙골라를 공식 방문, 두스 산투스 대통령과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

- 라울 의장의 앙골라 방문은 1976년 피델 카스트로(Fiedel Castro)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방문 이후 33년 만에 이루어진 쿠바 국가정상의 두 번째 방문이며, 동 방문 시 양국은 지질, 광물 및 산업분야에서의 협력 증진과 더불어 건축, 과학 탐사, 의료 및 교육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성명발표[7]

» 리카르도 루이즈(Ricardo Cabrisas Ruiz) 쿠바 각료회의 부의장은 2019.4월 앙골라를 방문, ▲ 로렌쑤 대통령을 예방하여 앙골라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입 대체 관련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제14차 앙골라-쿠바 정부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고등교육 분야 협력 MOU 체결

» 로렌쑤 대통령은 2019.7월 쿠바를 방문하여 ▲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수형자 이송제도 체결, ▲ 쿠바 아바나 대학 강연 실시

- 로렌쑤 대통령은 미겔 카넬(Miguel Canel) 쿠바 국가 평의회 의장과 회담 후, ▲ 양국 형제애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쿠바최고 국가 훈장인 '호세마르티(Jose Marti)[8]' 훈장을 받고, ▲ 양국 형사사법 공조 조약, 수형자 이송제도, 보건 및 교육협력 분야에 관한 MOU 체결

[러시아]

» 두스 산토스 외교장관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2009.5월 러시아를 방문, 두스 산투스 대통령의 2006년 방러시 합의한 사안에 대한 이행 가속화를 위한 협의체 설립 등 정치·경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관해 협의

» 2009.6월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앙골라를 방문, 투자보장협정, 경제과학기술협정 등에 서명하고, 수력발전소 건설 지원, 위성통신 분야에서의 기술 지원 및 대학 간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등 그간 다소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 마련

7) 쿠바는 앙골라가 1975년 독립을 선언한 이후 발생한 내전에 5만여명의 의용군을 파견, 현 집권여당 MPLA를 지원하였고, 이후에도 의료분야 및 교육분야에 많은 전문가를 파견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전통적인 우방국가 중 하나임

8) '호세마르티' 훈장은 쿠바의 민족영웅, 선구적 혁명가 및 문학가에게 부여하는 쿠바 최고 명예훈장으로서, 역대수훈자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故김일성 북한 주석 등이 있음

» 2011.3.30 카를로스 로페즈(Carlos Lopes) 재무장관, 러시아 3개 주요은행 대표와 2억8천만불 상당의 통신위성 개발 재무협정 체결

» 양국 간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제2차 공동위원회의 개최가 7년 가까이 지연되었으나, 2012.2월 루안다에서 개최

» 2015.7월 러시아 흑해함대에 속한 해군 함정이 25년 만에 앙골라 루안다 항에 정박하여, 양자 수교 40주년을 기념하고, 군사 및 기술 협력의 심화를 논의

» 로렌쑤 대통령은 2019.10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1회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기조연설 및 러시아-앙골라 정상회담 등을 실시

- 로렌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은 세계 평화 및 안보에 있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양국은 현재 경제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對앙골라 에너지·광물·농업·제조업 부문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를 위해 공동의 노력에 대해 언급
- 또한 2019.11월 Chepa Alexey 러시아 연방 하원의회(Duma) 국제관계 부위원장이 앙골라를 방문, 로렌쑤 대통령을 예방하여 앙골라 수력발전소 건설, 풍력에너지 및 태양전지 생산, 전력 수송망 구축 등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비롯한 도로·주택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100억불 규모 자금 투자 계획 설명

사. 서방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 2006년 및 2007년 초에 걸쳐 파리클럽(Paris Club)에 23억불 상당의 차관 원금 및 이자 지체분을 모두 상환함에 따라 파리클럽과의 관계 정상화

» 두스 산투스 대통령은 2009.2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앙골라-독일 경제포럼에 참석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너지, 광물탐사, 인프라 건설 및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 문제 등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고 경제기술협력협정 및 문화협정에 서명

»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2011.7.12-14 앙골라를 공식방문하여 두스 산투스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간 경제, 정치, 사회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약속

- 메르켈 총리는 앙골라에서 독일-앙골라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독일 기업의 앙골라 진출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앙골라에 독일시설을 사용한 대형 수력발전댐을 2012년부터 3곳 건설할 예정(약10억유로 규모)
- 독일은 앙골라에서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 중국, 포르투갈, 브라질 등과 비교해 다소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원유 공급 다변화 필요성을 인식, 글로벌 경기침체로 재정난에 처한 앙골라에 금융지원함으로써 에너지, 광물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

» 2009년 이태리 외교장관을 비롯 프랑스, 영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앙골라를 방문, 에너지, 농업 및 기타 통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9]해나가는 추세

» 유럽연합은 ACP-EU 코토누 협정을 기반으로 앙골라와 협력관계를 다지고 있으며 정기적인 고위급 회담 및 장관급 회의를 개최

- 논의 분야는 평화안보, 굿 거버넌스 및 인권, 경제성장과 발전, 에너지, 교통체계, 환경문제, 과학기술, 교육 등

» 로렌쑤 대통령은 2018.7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개최된 EU의회에 참석하여 앙골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기조연설 실시

- 연설에서 로렌쑤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 주요 경제정책 및 성과 등을 소개하고,

9) 대규모 차관 제공을 통해 주재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하며(일면 중국을 leverage로 이용하며) 러시아, 미국, EU 등 다양한 경제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가려는 노력을 지속중

AU-EU간 ▲평화와 안보, ▲굿거버넌스, ▲민주주의와 인권 및 ▲이민 등에 대한 단계적 논의와 EU와 ACP(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 국가 연합)간 협력 체제 강화 강조[10]

- 세계 주요 언론사들은 로렌쑤 대통령의 최초 EU의회 연설에 대해 "앙골라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은 15분간의 역사적인 연설" 및 " 앙골라가 전 세계에 개방되어 있는 국가임을 강력하게 상기" 라고 보도하는 등의 긍정적평가

»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이탈리아 대통령은 2019.2월 앙골라를 방문하여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에너지·농업·관광 부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 해당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3억불 규모 금융 협정 및 소난골(앙골라국영석유기업)-ENI(이탈리아 국영석유기업)社간 전략적 협력협정 체결

» 로렌쑤 대통령은 2018.8월 독일을 방문, ▲앙골라-독일 정상회담,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 ▲「제7차 앙골라-독일 경제포럼」 참석 등을 실시[11]

- 양국 정상은 에너지, 통신, 해양 보안, 철강 산업 및 농업 부문 협력 증대 방안 및 앙골라-나미비아-잠비아-민주콩고를 잇는 국가횡단 고속도로공사 구축을 위한 공공 · 민간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논의
- 해당 방문을 계기로, ▲앙골라 재무부-독일 Commerzbank 은 행간 5억 달러 규모 금융 협정, ▲독일-앙골라 교통부 간 교통협력 MOU, ▲독일지질자원연구소(BGR)-앙골라 지질연구소(IGEA)간 MOU 체결

»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20.2월 앙골라를 방문하여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회담, ▲제8차 앙골라-독일 경제 포럼 참석, ▲앙골라 인류학 박물관, ▲주앙골라 독일문화원, ▲프로이센 문화유산재단 방문 등을 실시

10) 민간투자법 및 경쟁법 개정, 해외은닉자산 환수 조치,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 노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노력 등

11) 동 계기 개최된 「제8차 앙골라-독일 경제포럼」 에서는 ▲ 교육 훈련(Voith社 인재육성센터 건립, 석유광물분야 전문가 양성), ▲ 에너지(Caculo Cabaca 수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10억 6천만 유로 금융 지원), ▲ 교통(루안다 경전철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 금융(앙골라 조폐공장 건립), ▲ 도로(295 및 140 도로 재건), ▲ 보건(의료병원 건립) 분야 MOU 7건이 체결됨

- 로렌쑤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 ① Cunene강 유역 대형 수력발전소 건립, ② 태양열 에너지 생산 확대, ③ Mocamedes 및 Tombwa市 전력망 확장, ④ 농축산 분야 경쟁력 제고, ⑤ 역내 백신 · 동물연구소 건립, ⑥ 기니만 연안 해상 안보 구축 등의 분야에 대한 독일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 당부

아. SADC(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및 아프리카 지역 협력 강화

» 2011.8 루안다에서 개최된 제31차 SADC 정상회의에서 주재국 두스 산투스 대통령이 임기1년의 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지역내 국가위상 제고

» SADC 회원국으로 구성된 250여명의 신속기동연합군이 2009.2월 앙골라 Bengo주 Cabo Ledo에서 연합작전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분야 협력 강화

- SADC 연합군은 상비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로 구성되어 감시 및 통제, 평화와 안정 유지 활동, 분쟁 예방 및 확산 방지 활동, 인도적 지원 활동, 분쟁 종료후 무장해제 활동 등의 역할을 UN 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수행함으로써 역내 안정유지 기능 수행

» 2011.5월 SADC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다가스카르의 안드리 라조엘리나(Andry Rajoalina) 과도정부 수반이 앙골라를 방문, 두스 산투스 대통령과 회담

- 마다가스카르 과도정부 수반은 정치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마다가스카르의 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앙골라 정부의 지지와 협조 요청
- 나미비아 수도 빈트후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COMESA, EAC, SADC를 잇는 3자 자유무역지대 추진, 마다가스카르 정치문제 중재안 결의

» 2011년 제 31차 SADC 정상회의가 앙골라 수도 루안다에서 개최되었으며, 14개 회원국 대표 참석

- 두스 산투스 대통령은 임기 1년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아프리카 역내 문제, 금년 및 내년 지역 내 총선, 경제 통합, 식량안보, 기후변화, AIDS 퇴치, 여권신장, 소말리아 긴급지원 등 주요사안에 대한 공동성명 채택
- 앙골라, 보츠와나,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등 SADC 회원 5개 국가는 정상회의 마지막 날 5개 국가와 접경해 있는 오카방고-잠베지(Okavango-Zambezi) 강 유역 생태 관광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협정 서명

» 2012년 루안다에서 SADC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4개 회원국 정상 및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짐바브웨 등 역내 문제와 회원국 간 인프라 건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역 인프라 개발 마스터플랜(Regional Infrastructure Deveopment Master Plan) 구축 논의

» 민주콩고 안정화 문제 등 지역 안보 현안 논의를 위해 2014.10.18-22간 루안다에서 대호수지역정상회의-남아프리카공동체(SADC) 합동 외교·국방장관회의 및 앙골라-민주 콩고-남아공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 참석 장관들은 콩고 민주공화국이 지역 안정 및 평화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함. 동시에 르완다에는 M23 소속 잔당 송환 요청

» 2017.3 스와질란드에서 SADC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4개 회원국 정상 및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주콩고 및 레소토의 정치적 안정화 도모 ▲ 2015-2063 SADC의 전략적인 산업화 추진 방안 ▲ 예산 집행 현황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SADC 대학교 설립 프로젝트 논의

» 2018.4월 앙골라는 SADC 정치·군사·안보 기구(SADC Organ on Politics, Defence and Security Cooperation) 의장국 자격으로 「SADC(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 DOUBLE TROIKA 특별 정상회의[12]」 개최
- ▲ 2017.10월 Khoantle Motso 레소토 군참모총장 피살로 악화되고 있는 레소토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 SADC 레소토 임무단(SADC Preventive Mission in Lesotho (SAPMIL)) 주둔 시한 6개월 연장(2018.11까지), ▲ 민주콩고 대선 문제 등에 논의

» 2018.6월 앙골라는 「제20차 SADC 정치·군사·안보 기구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민주콩고,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정세 관련 의제 논의

» 앙골라는 2018.8월 나미비아에서 개최된 「제38차 SADC 정상회의」에서 회원국과 ▲ SADC 레소토 임무단(SAPMIL) 앙골라 평화유지군 파병, ▲ 민주콩고 헌법에 의거한 대선 실시 지원, ▲ 마다가스카르 및 짐바브웨 정세 안정 등에 대해 논의
- 회의에서 로렌쑤 대통령은 Edgar Chagwa Lungu 잠비아 대통령에게 SADC 정치·군사·안보 기구 의장직(임기 1년) 이양

» 2019.8월 탄자니아에서 「제39차 SADC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앙골라는 회원국과 ▲ 사법분야 상호지원협정, ▲ 범죄인인도조약, ▲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 산업분야 협력 협정 체결(대호수지역정상회의 등)

» 2014년 루안다에서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 정상회의 및 SADC-대호수지역 정상회의(ICGLR) 장관급 회의가 연달아 개최
- 앙골라,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모잠비크, 상투메 프린시페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동 회의에서 정상들은 두스 산투스 대통령 2014-16년간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 정상회의 의장 선출
- 각국 정상들은 동 회의체의 효율성 강화와 회원 국 간 이익 증진을 위해 동 기구를 국제기구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앙골라는 동 의장직 수임을 계기로 회원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동 회의체의 제도 개편에 주도적 역할 기대

12) 2018.4월 기준, 동 회의에는 SADC 의장국인 남아공, 전임 의장국인 스와질랜드, 차기 의장국(부의장)인 나미비아와 SADC 정치안보기구 의장국인 앙골라, 전임 의장국 탄자니아, 차기 의장국(부의장) 잠비아 총 6개국으로 구성, 이외 콩고공화국과 레소토는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

- 동 정상들은 본 회의체가 포르투갈어 사용국공동체(CPLP)의 자매 회의체의 성격이 아닌, 아프리카역내 포어 사용국가의 이해관계 및 아프리카 지역 문제에 대한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역할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필요성 합의
- 또한 본 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단결과 지역문제를 아프리카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 주장

» 2015.7월 양자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며, 러시아 흑해 함대 소속 함정이 앙골라 루안다 항에 정박하여, 양자간 군사 및 기술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

» 앙골라는 2014-2017년간, 1회 연임을 비롯한 총 4년간의 대호수지역국제회의(ICGLR) 의장직 수임을 통해 역내 안보와 평화 정착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

» 로렌쑤 대통령은 2018.12월 콩고공화국 개최 「대호수지역국제회의(ICGLR) 소규모 정상회의(Mini-Summit)」에 참석, 나미비아, 잠비아, 보츠와나 정상들과 2018.12.30 실시되는 민주콩고 대선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선 실시 권고

» Huang Xia 대호수지역 UN특사는 2019.11월 로렌쑤 대통령을 예방하여 앙골라 정부가 대호수 지역 평화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DR 콩고 정세 안정 등, 대호수 지역의 완전한 평화 구축을 위한 앙골라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 요청

자. 카빈다 지역 자원 개발을 둘러싼 민주콩고와의 국경 분쟁

» 앙골라와 민주콩고간 카빈다 주변지역의 국경선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양국은 2007년 카빈다 지역에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고 국경획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답보 상태에 머묾에 따라 양국간 국경 분쟁 발생

- 국경 미확정으로 인해 카빈다 offshore 지역의 개발이 지연되자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양측 상호 비방
- 사태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2009.4월 Muzito 민주콩고 총리가 앙골라를 전격 방문, 두스 산투스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경문제를 다룰 전문가 회의를 개최, 동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사태 진정
- 그러나 해상경계문제뿐만 아니라 앙골라와 민주콩고는 1,500마일 이상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콩고 측은 앙골라 군대가 북부 국경인접지역 민주콩고 영토에 불법으로 주둔하고 있다고 비난함에 따라 양국간 국경분쟁이 재연될 가능성 잠재
- 한편, 민주콩고 정세 불안으로 2017년 현재 Kasai지역 민주콩고 피난민들이 앙골라 룬다 노르트(Lunda Norte)지역으로 유입해오고 있는바, 앙골라 정부는 해당 난민유입에 따른 국내 정세불안 가능성에 유의하면서도, UNICEF, UNHCR 및 국내 NGO 단체들과 협력하여 난민촌 설치 및 각종 물자·인도적 지원 실시
- 떼뜨 안토니오(Tete Antonio) 앙골라 외교차관은 2018.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9차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앙골라 내 난민 약 7만 명, 이중 난민인정자는 35,644명, 난민신청자는 34,356명이며 앙골라 정부는 국제구호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난민들에게 식량지원·구호물품 제공·일자리 알선·의료 및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의 인도적 지원 지속강조
- 또한, 로렌쑤 대통령은 앙골라 정기국회(2017.10.16. 실시) 시정연설에서에서 민주콩고의 불안정한 정세에 우려하며, 이해 당사자들간 조속하고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국가 안정을 되찾아 민주콩고가 아프리카의 안정과 경제발전 기여 희망

» 로렌쑤 대통령은 2019.2월 취임후 첫 해외 순방지로 앙골라를 방문한 펠릭스 치세케디(Felix Tshisekedi) 신임 민주콩고 대통령과 회담에서 치세케디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앙골라 정부는 양국 협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 치세케디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양국 우호관계 및 경제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언급

- 앙골라와 민주콩고는 2,511㎞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콩고 왕국 시대부터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긴 시간을 함께 해 온 우애 깊은 형제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가길 희망

차. 교황의 앙골라 방문

»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2009.3월 앙골라를 방문, 사제단을 위한 집전 및 야외 축구경기장 스타디움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 미사, 대규모 야외 미사 및 여성들을 위한 특별미사 집전

- 교황은 방문기간 중 오랜 내전을 거치면서 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앙골라가 내란 종식 후 빈곤퇴치 및 국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아프리카 지역내에 만연한 부패의 근본적 청산, 투명성 확보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중요성 강조
- 1992년 교황 Paul 2세의 방문 직후 내전이 본격적으로 격화되었던 상황과는 달리 2009년 교황의 방문을 계기로 2008.9월 총선 이후 점차 안정기로 접어드는 국내 정치·사회 분위기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앙골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로 인식

카. 주변국 관계 동향

[콩고민주공화국]

» 앙골라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 정부에 민주적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 중

- 앙골라는 1990년대 후반 로랑 카빌라(Laurent Kabila) 정부가 르완다와 우간다의 지원을 받는 반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자국 군대를 파견하여 카빌라 정부를 지원한바 있으나, 최근 들어 카빌라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동참하는 경향을 시현
- 로렌쑤 대통령은 조셉 카빌라 민주콩고 대통령의 2018.8월 방앙 계기 정상회담에서 앙골라 정부는 SADC 정치·군사·안보기구의 의장국으로서 민주콩고를 비롯한 남부 아프리카의 평화 및 안보 구축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2018.12월 대선 실시를 통해 민주콩고가 국제사회에 평화로운 정권이양을 약속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천명하는 등, 민주 콩고의 정권교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

[남아공]

» 앙골라 내전 당시 적대관계에 놓였던 남아공 정부와 양국 간 경제 의존도가 커지면서 관계 개선, 교류 확대

- 2002년 남아공은 앙골라의 최대 수입국으로 성장, 2003년 남아공-앙골라 상공회의소 출범
- 2009.8월 남아공의 주마(Zuma) 대통령은 내각 대표단과 앙골라를 공식 방문, 신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으로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
- 양국은 SADC, AU, UN 등 다양한 다자기구의 회원국으로 양자 협력관계 강화

» 2017.11월 로렌쑤 대통령은 취임(2017.9월) 후 남아공으로 첫 해외 공식 방문 실시

- 로렌쑤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첫 해외방문국으로 남아공을 방문한 것은 아파르트헤이트(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항하여 함께 투쟁한 양국간의 역사적 유대 관계에 기반한 "의식적인 선택"이였다고 언급
- 동 회담 계기, 앙골라와 남아공은 ▲ 앙골라-남아공 공동위원회 설립 MOU, ▲ 환경부문 의정서, ▲ 앙골라-남아공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 앙골라-남아공 경찰협력 MOU, ▲ 양국 관세행정 협력을 위한 MOU등이 각각 체결

[그 밖에 주변국]

» 나미비아, 짐바브웨와 독립이후부터 군사협력 등 우호관계 유지, 한때 적대관계였던 르완다, 우간다와도 협력관계 강화 노력

- 제2차 콩고 전쟁(1998-2003) 당시 앙골라, 나미비아, 짐바브웨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카빌라 정부를 지원하면서, 반군세력 MLC를 지원한 우간다, 르완다와 대결구도가 형성



앙골라 중앙은행(BNA) 건물(루안다 시내 소재)



경제

1. 경제 개관 070
2. 인프라 환경 071
3. 경제 성장률 072
4. 소비자 물가 074
5. 수출입 동향 075
6. 주요 경제정책 076
7. 정부 재정운용 079
8. 에너지·자원 현황 079
9. 한·앙골라 양자관계 현황 082

V

경제

1 | 경제개관

» GDP는 915억불('19, IMF), 1인당 GDP는 3,040불('19, IMF)

» 원유, 다이아몬드, 철광석 등 대규모 자원이 매장되어있는 자원부국이나, 석유부문이 GDP의 37%, 정부 재정수입의 75%, 총 수출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등락이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

- 앙골라는 2016년 2, 4분기 및 2017년 상반기에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를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자리를 차지한 바 있으며, 원유 부문이 GDP의 76%를 차지해 2018년 기준 아프리카 내 원유 생산국 2위, 원유 매장량 4위(1위 리비아, 2위 나이지리아, 3위 알제리)를 기록중

2 | 인프라 환경

» 앙골라는 내전으로 국토가 파괴되고 좌파성향의 MPLA에 의한 계획 경제 운영 실패로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었으나, '02.4월 내전종식 이후 전후복구사업과 경제개발정책을 적극 추진

교통인프라

구분	현황
철도	• 총 2,852㎞의 철도가 놓여있으나, 내전과 낙후로 열악한 상태 • 벵겔라철도(CFB) 개선사업에 총 20억 달러를 투자, 기존 노선을 국제 규격으로 보수 및 신규역 신설 - 벵겔라 철도 개선사업 완성 시 연간 승객 400만 명 이상, 화물 2천만 톤을 운송할 것으로 예상 - 2015년 동 철도를 루아카누(Luacano)시를 통해 잠비아까지 연결시키는 계획 발표 - 2018년 Bungo(Uige州)-루안다항을 잇는 36㎞ 길이의 철도 및 Lobito항구-광업터미널 연결 구간 철도 건설 • 2018.3월 앙골라 벵겔라州-민주콩고-잠비아를 잇는 총 1,344㎞ 철도에 대한 현대화 · 재건사업이 완료되어 36년만에 동 철도를 통해 앙골라 Lobito지역을 거쳐 콩고민주공화국의 카탕가(Katanga) 지역과 북부 잠비아 코퍼벨트(Copper Belt) 지역의 광물을 대서양으로 육상수출 • 아프리카 동·서부를 횡단하는 중국 자금으로 도입된 관광 열차가 2019.7월 탄자니아를 출발하여 타자라(TAZARA, 탄자니아-잠비아 철도공사) 철도와 앙골라 벵겔라(CFB, 벵겔라철도공사)철도를 거쳐 12일간 잠비아, 민주콩고, 앙골라를 횡단하며 운행
도로	•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수도 루안다를 중심으로 각 지방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51,429㎞ 규모의 도로망을 보수 및 건설을 추진 중이나, 대부분의 도로가 비포장 상태이며 내전과 홍수로 인해 낙후된 상태(도로포장률 10% 수준) - 역내 도로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2019.10월 기준 935㎢ 길이에 달하는 1차 도로망과 200개의 아스팔트 도로, 28개의 도로 교량이 재건
항공	• TAAG Angola Airlines가 국내외 주요도시를 연결하며, 이밖에도 루프트한자(독일), 프랑스, 영국, 에미레이트, 남아공, 나미비아 항공이 정기적으로 취항 - 유럽연합(EU)은 안전상 이유로 2007년 TAAG Angola Airlines가 운행하는 일부 보잉 777 및 1개의 737 기종을 제외한 모든 앙골라 항공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blacklist)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2018년 8월 TAAG Angola Airlines이 보유한 항공기에 대한 운항 제한을 해제하고 블랙리스트에서 제외 조치

항만	• 제 1의 항만은 루안다 항만, 제 2의 항만은 로비투(Lobito) 항만으로 광물, 수산물, 농작물 수출을 담당 • 앙골라 교통부는 로비투(Lobito) 항만 현대화 사업에 총18억 달러를 투자, 2014년도에 완공하였으나 현재 80%의 수출입 물량이 수도와 인접한 루안다 항만에 집중 - 앙골라 정부는 2019.2월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과 앙골라 Namibe항 신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에 6억불 투자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 자금을 통해 일본 토요타 통상(Toyota Tsusho Corporation)은 2019.9월부터 신규 터미널을 건설하여 앙골라 항만인프라 개선에 기여해 나갈 예정

» 통신 인프라

- 2018년 기준,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16만 명으로 추정되며, 회선 연결 또한 열악한 상태
- 동 기간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1,400만명, 인터넷 가입자 수는 700만 명으로 추정

» 인적자원

- 오랫동안 내전으로 인해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유입되는 막대한 오일머니의 혜택은 일부 엘리트 계층만이 누리고 있어 앙골라 국민의 약 70%가 하루 2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
- 2019년 UNDP가 발표한 인간개발지수 UNDP Human Development Index에 따르면, 앙골라는 총 189개국 가운데 149위의 낮은 순위를 기록, 교육과 보건 등 인적 자원 관련 환경 전반에 걸쳐 열악한 구조를 지닌 것으로 평가

3 | 경제 성장률

» 2005-08년 앙골라는 국제 유가 상승세와 신규 유전개발에 따른 원유 수출 증가, 다이아몬드산업 회복세에 힘입어 연평균 18%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을 실현, '아프리카 성장엔진'으로 부상

» 2009년에는 OPEC의 감산결정으로 석유 일일 생산량이 183만 배럴로 감소함과 동시에 국제유가 하락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성장은 0.8%로 크게 둔화

» 그러나 2010년부터 세계 경기회복과 더불어 석유생산량이 증가하고, 석유부문 외에도 농업, 건설업, 제조업 부문의 활성화에 힘입어 경제성장률 3.4% 기록, 2012년에는 6.8%대의 고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IMF는 추정

» 석유 편중적 경제 구조 등으로 인해 2014년 하반기 유가 급락으로 큰 경기 침체

- 2016년 앙골라 경제는 저유가 장기화로 인해 1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침체기를 겪은 바, 석유 세입 감소가 재정적자 및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에 대응한 정부의 외환통제가 해외투자와 교역규모의 격감으로 이어지는 등의 악순환 초래
- EIU는 2016년 앙골라 석유부문 성장이 당초 전망치인 4.8%에 크게 못 미치는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전체 경제성장율 예상치를 0.6%로 하향 조정

» 세계은행은 유가상승세 등에 힘입어 앙골라의 2018/19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7%/2.2%로 전망하고, 앙골라, 나이지리아, 및 남아공 3개국의 경제성장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1]하였으나, 2019년 중순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서」를 통해, 연초 예상보다 저조한 비석유 부문 성장과 석유 생산량 감소세를 반영하여 2019년도 앙골라 경제성장률을 종전(2019.1) 2.9%에서 1%로 하향 조정

» 앙골라 경제의 지속적 침체 원인으로는 ▲ 국제 저유가 기조 지속, ▲ 높은 이자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 여력 감소, ▲ 하이퍼인플레이션 및 외환 통제로 인한 해외투자 유치 격감 등인 것으로 분석

» 심각한 석유의존도로 인해 앙골라는 2014년 이후 저유가로 인한 경기침체를 경

1) IMF는 2018/19년도 경제성장률을 2.2%/2.4%로 전망

험하고 있으며, 2017.9월 취임한 로렌쑤 대통령은 경제다변화정책 및 각종 규제 개혁조치[2] 등을 통해 위기 극복 노력 중

» IMF는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2017-2021년 앙골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종전 2.7%에서 1.4%로 하향 조정

- 다만, 동 전망치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내 주요 경제대국인 남아공 및 나이지리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각각 0.8%)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

» 현재 앙골라는 2009년 이후 IMF로부터 공공투자 방식 개선·관세청 시스템 개선·부가세 도입·지출예산 최소화 등 4개의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으며, 부채 일부를 상환

- 2017.2월 앙골라 재무부는 2009년 이후 IMF로부터 빌린 차입금 중 14억 달러는 상환하였으며, 현재 최종 상환까지 약 2백만 달러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다고 발표
- 최근 경기침체 악화로 인해 앙골라는 2016.3월 IMF 구제금융을 신청(3년간 총 15억불)하였으나 무산

4 | 소비자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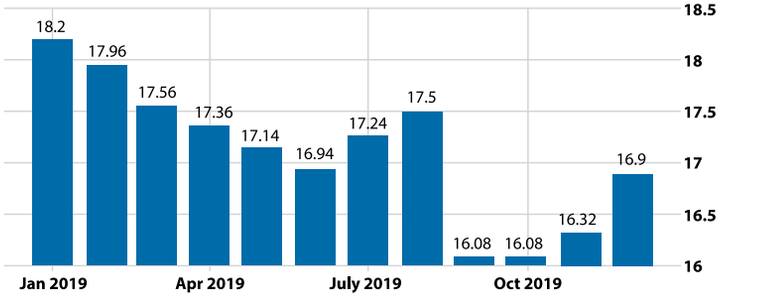
» 물가상승률은 '90년대 말까지 수백%대를 기록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 양상을 보였으나, '99.5월 중앙은행의 신환율 및 통화정책으로 '04년 이후 점차 안정세를 기록

» 2015년 평균 14.3%였던 물가상승률은 2016년 1/4분기에 26% 상승했고, 이는 정부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

» 2014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 및 환율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추세(2014년 7.3%, 2015년 10.3%, 2016년 32.4%)를 보여 왔으나, 최근 국제유가 회복세에 따른 외환보유고 증가 및 해외부채 감소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다소 감소 추세(2017년 31%, 2018년 18.6%, 2019년 16.9%)

- 앙골라 수도 루안다는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로 다년간 선정

(단위 : %)



자료 : Tradingeconomics

〈 앙골라의 물가상승률 〉

5 | 수출입 동향

» 2016년 4분기(10-12월)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한 46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앙골라 통계청(INE)의 「2016년 해외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4% 감소한 31억 달러, 수출액은 38.7% 증가한 76억 달러 기록
- 2016년 4분기 석유부문 수출액은 총 수출액의 94.5%(72억 달러를 기록)

2) ▲해외은닉자산 환수법, ▲고정환율제 폐기 및 관리 변동환율제, ▲민간투자법 및 경쟁법 개정, ▲거시경제 안정화 프로그램(PEM), ▲생산지원·수출 다변화·수입대체 프로그램(PRODESI), ▲투자자비자 제도, ▲부가가치세(IVA) 도입, ▲국영기업 일부 민영화 조치 등

» 앙골라 통계청(INE)에 따르면, 2018년도 앙골라 수출은 전년도 대비 77% 상승, 수입은 59% 상승을 기록, 6조 2350억 콴자(191억불)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 석유 부문이 앙골라 전체 수출의 96%, GDP 대비 20% 기록

» 수출동향
- 주요 수출품목('18) : 원유, 다이아몬드, 가스, 정제유
- 주요 수출대상국('18) : 중국(60.28%), 인도(9.27%), 미국(3.35%), 스페인(3.04%)등

» 수입동향
- 기계, 식료품, 농산물 등 대부분의 공산품 및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
- 주요 수입품목('18) : 기계, 연료, 전자 제품, 농산물, 자동차 및 관련 부품, 화학 약품 등
- 주요 수입대상국('18) : 중국(14.56%), 포르투갈(13.67%), 싱가포르(9.64%), 벨기에(6.54%), 토고(5.95%) 등

6 | 주요 경제정책

»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1979년 외국인투자유치법을 제정, 1988년에 개정한 이후, 2004년, 2011년, 2015년, 2018년 신외국인투자법(민간투자법)을 제정 및 시행
- 투자승인주체 변경, 최소 투자금액 폐지, 현지파트너 의무 참여 조항 폐지, 세금특혜 확대 등이 주요 골자

» 2003.9월 빈곤감축전략을 발표, 농업생산 증대 및 농촌개발, 인프라(도로·교량 등) 개선, 보건·의료, 교육, 난민재정착, 고용·직업훈련 향상, 선정 등의 주요 정책목표를 추진

» 2006.4월 향후 외국차관에 대한 원유 담보관행 폐지 방침 발표
- 원유는 차관사업 부도의 경우에만 담보로 제공되며, 건설업 등에 대한 차관에 대해 채권 발행

» 2008년 이후 앙골라 정부는 풍요한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빈곤퇴치, 부의 재분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 전략인 Vision 2025를 추진 중

» 빈곤감축전략(Strategy to Combat Poverty, 2010-2015)을 통해 2015년까지 빈곤층을 2010년의 절반까지 감축하고, 제반 인프라 및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나 아직 국민의 70%는 하루 2달러 이하로 연명 중

» Vision 2025 달성을 위한 중단기적 전략으로 450억불 규모의 국가개발정책(National Development Plan, 2013-2017)을 수립, ▲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경제 다각화, ▲ 국내 기업 육성 및 국산품 증가 등을 추진
- 특히, 자원 편중적 구조 탈피를 위해 '경제 다각화 정책'을 지속 추진 중

» 하지만 2014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국제유가 하락에 대응하여 앙골라 정부는 재정지출 감축 및 자금 확보를 꾀하면서, 각종 개발 정책이 지연

» 2017년 5월 MPLA는 2017-2022년 정부 계획 프로그램을 발표
- 「2017-2022」 정부 프로그램은 포괄적으로 민주주의 및 통합사회 실현을 위해 ▲ 기아 및 빈곤퇴치 노력, ▲ 국민 삶의 질 향상, ▲ 애국교육 실현 등에 집중

» 2017.9.26. 로렌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0.16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앙골라의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 민간 수출 확대, ▲ 수입 대체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추구할 것이며, 특히 농업 및 제조업 투자를 통한 ▲ 일자리 창출, ▲ 지역 불균형 해소, ▲ 세수 확보 등을 통해 국제 유가 하락 및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에 직면한 앙골라 경제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언급

» 현재 로렌쑤[3] 행정부는 석유수출 위주의 국가경제구조를 개편하고 취약한 경제 체력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다변화 정책 및 거시경제안정화 정책을 적극 시행 중이며, ▲해외은닉자산 환수법, ▲고정환율제 폐기 및 관리 변동환율제, ▲민간투자법 및 경쟁법 개정, ▲거시경제 안정화 프로그램(PEM), ▲생산지원·수출 다변화·수입대체 프로그램(PRODESI), ▲투자자 비자 제도, ▲부가가치세(IVA) 도입, ▲국영기업 일부 민영화 조치 등이 도입

- **(경제다변화 정책)** 2025년까지 에너지·전력·수자원·건설 등 인프라 분야에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빈곤퇴치, 부의 재분배,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다는 장기 전략인 'Vision 2025'를 발표하고, 외국 투자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
-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로렌쑤 정부는 2018.1월, 물가상승률 통제 및 앙골라 외환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앙골라 거시경제안정화 정책[4](Economic Stabilization Program)」을 발표한 바, 정책을 통한 재정·외환·통화·금융 부문에서의 신규 제도를 도입·시행

» 한편 2018.12월 IMF는 37억불 규모의 對앙골라 확대금융지원[5](EFF)을 발표(IMF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대상 최대 지원 규모)하였으며, 2019.6.12. 확대금융(EFF) 지원에 대한 앙골라 정부의 경제 프로그램 관련 1차 검토를 실시하고, 對앙골라 2차 확대금융지원(EFF) 자금 2억 4,815만불 인출 승인

- IMF는 1차 검토를 통해 앙골라 정부가 IMF의 확대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국제 유가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평가

3) 로렌쑤 대통령은 2019.3.20. 대통령령 81/19을 통해, 동 정책(Angola 2025)의 사업기간을 기존 2025년에서 2050년으로 연장 발표

4) 특히, 로렌쑤 행정부는 2018.1월 앙골라 관자화의 달러화 페그를 포기하고 기존의 고정환율제를 관리변동환율제(중앙은행이 외환경매로 인한 환동변동폭을 상하 2% 범위로 관리)로 변경한데 이어, 2019.10.23 공식 성명을 통해 동 관리변동환율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하며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발표

5) 동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부채 수위 안정화를 위한 재정 강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율 유연성 증가, △인플레이션 하락을 위한 보완적인 통화정책 시행, △은행 시스템 강화, △기업 환경 개선, △AML/CFT(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법적 시스템 갱신, △거버넌스 개선 등을 목적으로 추진

- 또한, 앙골라 IMF 사무소장은 앙골라의 거시경제정책을 평가하며 IMF의 금융지원 이후, 앙골라가 거시 경제 안정화 및 금융 체제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정부의 연료, 물, 전기 등 에너지 분야 보조금제 폐지 등 개선할 사항이 산재해있다고 언급

7 | 정부 재정운용

»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는 앙골라 정부의 미흡한 재정운용을 취약점으로 지적하며 구조 개혁을 실시할 것을 요구, 이에 따라 현재 앙골라 정부의 구조 개혁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투명성을 제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며, 정부의 정책일관성 부족과 부패만연 등으로 인해 구조 개혁 추진이 빈번히 지연되는 실정

» 국제투명성기구가 2019.1월 발표한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앙골라의 투명성 순위는 180개국 중 146위를 차지하며, 2017년 167위, 2018년 165위 등 하위권

8 | 에너지·자원 현황

가. 석유

» 1966년 카빈다 지역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이후, 1976년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을 설립, 본격적으로 개발을 착수하여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수출

- 2002년부터 오늘날까지 석유와 천연가스는 앙골라 경제의 주 수입원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석유는 정부 재정수익의 80%를 차지. 앙골라 정부는 자체 정유시설 건설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와 OPEC 가입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영향력 증대 모색

-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정책이 시행된 2017년 1월 이래 앙골라는 나이지리아에 이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원유생산국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원유 매장량 3억 배럴의 Kalimba, 원유 매장량 2억 배럴의 Afoxe 및 원유매장량 4억5천만~6억5천만 배럴의 Agogo-1 ST1 등 연안 해저에서 신규 유전이 계속 발견되어 원유생산량 증가 기대
- 원유 확인 매장량은 81억 6천만 배럴이며, 일산량 147.3만 배럴('18)[6]
- 앙골라 정부는 OPEC의 합의 시행일(2017.1.1.)부터 일일 원유생산량 상한선을 기존 일산량(177만 배럴) 대비 7.8만 배럴 감축한 167.3만 배럴로 낮추었으나, 2019년 6월 말까지 추가감산 합의에 따라 앙골라는 일일평균 140만 1천 배럴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7]

나. 가스

»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규모는 약 3,830억 입방미터('18년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19)

- '18년 생산량은 96억 1,400만 입방미터
- 생산된 천연가스의 66%는 소각, 24%는 석유생산을 위한 재주입에 사용되며, 7%만 판매('15년 기준)

» 앙골라 정부는 소각되는 가스를 줄이고 상업적 이용 증대를 위해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8]

6)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19

7) 앙골라 일간지 Novo Jornal(http://novojornal.co.ao/economia/interior/opep-a-beira-de-anunciar-reducao-da-meta-oficial-de-producao-de-petroleo-81174.html)

8)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인 100억 달러 투자(EIA, Country Analysis Brief: Angola May, 2016)

- 앙골라 LNG Ltd[9]를 설립하여 현재 Zaire주 Soyo 지역에 앙골라 최초 LNG 플랜트 건설
- 해당 플랜트는 2013년 중반에 생산 및 선적을 시작하여(생산용량 520만톤/년)을 하여 한국, 일본, 중국, 브라질 등에 수출. 2014년 기술적인 문제로 생산 및 선적을 중단하였으나, 2016년 1월 생산이 재개되어 동년 6월부터 수출 개시[10]

다. 광물자원

» 다이아몬드, 금, 철, 니켈 등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내전과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다이아몬드를 제외하고는 탐사 및 개발이 더딘 상태

» 앙골라는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은 세계 3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으로 '18년 한 해 동안 943만 캐럿의 다이아몬드 생산(World Mining Data 2019)

» 북동부의 룬다 노르트(Lunda-Norte)와 Lunda-Sul 주에서 다이아몬드 생산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Malanje, Uige, Moxico, Cuando Cubango 주에서 탐사 진행 중

» 특히, 앙골라 카토카(Catoca)지역은 세계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 생산지역(앙골라 다이아몬드 총 생산량의 75% 차지)이고, 2017년 한 해 동안 740만 캐럿 생산[11]

» 내전종식 이후, 알로사(러시아), 오데브레헷(브라질) 등 외국회사들의 다이아몬드 광산 투자진출이 활발

- 2003.4월 앙골라 정부는 국영회사 Ascorp사의 다이아몬드 광산 독점권 폐지 발표

9) 지분구조 : 미국의 Chevron 36.4%, 앙골라 석유공사(Sonangol) 22.8%, 프랑스 Total 13.6%, 영국 BP 13.6%, 이탈리아 Eni 13.6%

10) BMI, Angola Oil and Gas Report 2016

11) Sociedade Mineira de Catoca Lda, Annual Report 2018

• 다이아몬드 외에도 철광석, 주석, 금, 망간, 구리, 크롬 등 약 18종의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했으나 상업화에는 불충분

9 | 한·앙골라 양자관계 현황

가. 교역현황

» 앙골라는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주요 수출·수입 상대국으로서 2019년 기준 양국 간 교역액[12]은 2억 5,356만 불 기록('19, KITA)

» 2019년 對앙골라 수출은 2.4억불(철강제품, 자동차류, 선박 등), 수입은 0.1억불(석유, 기계류, 기타수산가공품 등)로, 2018년 대비 수출 및 수입이 증가

• 2015년 1/4분기 앙골라의 전체 수입중 대한국 수입규모가 1위(약 10억불) 기록(대우조선해양의 시추플랫폼 수출)

• 2017년 앙골라 자동차 시장 점유율 3위는 현대·기아차

» 우리나라의 원유수입 다변화 정책에 따라 원유부국인 앙골라와의 교역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앙골라 또한 원유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해양원유생산·저장설비를 중심으로 하는 대 앙골라 수출 확대와 더불어 건설·서비스 부문 및 플랜트 수출 증가 전망

12) 양국 교역액 : 2.2억불(2011)→5.54억불(2012)→13.8억불(2013)→19.5억불(2014)→20억불(2015)→7.2억불(2016)→5.3억불(2017)→-3.4억불(2018)

한-앙골라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천불)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금 액	1,799,960	1,858,842	552,525	338,844	159,712	236,830
	증가율 (%)	45.0	3.3	-70.3	-38.7	-52.9	48.3
수입	금 액	149,854	142,541	173,858	197,956	184,524	16,733
	증가율 (%)	10.0	-4.9	22.0	13.9	-6.8	-90.9
양국간 총교역액		1,949,814	2,001,383	726,383	536,800	344,236	253,563
무역 수지		1,650,106	1,716,301	378,667	140,888	-24,812	220,09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나. 우리기업 진출 현황

» **대우조선해양**

• 1987.2월, 루안다 지사 설치, 유전개발 사업에 지분 참여
• 2003.2월, 총 7억2천만불 규모의 Benguela Belize Tomboco 사업을 Stolt·대우 콘소시움 수주
• 2006.6월, 계약가 13억불 해양 Platform 프로젝트 수주
• 1995년 이후 Sonangol로부터 12건의 해양 프로젝트를 비롯한 3척의 LNG 운반선 및 5척의 원유운반선을 장기간 수주 중
• Porto Ambaim 조선소 지분 30% 인수
• 2011.9월 해양원유플랜트선(FPSO-Pazflor) 인도 완료(07.8월 수주, 24억불)
• 2013.10월 총 12.4억불 규모의 Sonangol社 드릴십 2기 수주
• 2018.12월 유가하락 등을 이유로 드릴십 1기당 5억 3천불로 인수액 수정

- 2019.3월 드릴십(SONANGOL LIBONGOS) 1기 인도 완료(13년 수주, 5억 3천만불)
- 2019.5월 드릴십(SONANGOL QUENGUELA) 2기 인도 완료(13년 수주, 5억 3천만불)

» 삼성 물산

- 2003.5월 총 6억5천만 불 규모의 Dalia FPSO 수주(하청)
- 2006.8월 계약가 2억 4천만 불의 해양 Platform 프로젝트 수주

» 현대 중공업

- 해양석유개발설비(FPSO) 수주
  - 2001.12월 총 3억불 규모의 Girassol FPSO 원청 수주
  - 2004.12월 총 7억 4천만 불 규모의 Kizomba A FPSO 원청 수주
  - 2005.10월 총 7억 4천만 불 규모의 Kizomba B FPSO 원청 수주
  - 2006.6월 총 4억불 규모의 Great Plutonio FPSO 원청수주
- 2011.12월 총 4천2백만불 규모의 Cbinda 10 MW, 30MW PPS Power Plant ENE 원청 수주

» (주)World Wide International(구 Inter—Burgo)

- 1982년 수산업 시작, 선단 27척, 선원 및 수산종사자 약 1,000여명 보유 대형 수산업체로 성장
- 호텔·관광업, 무역, 건자재 및 광물개발 등 활동 중

» 남광토건

- 현지 합작법인 NIEC(Namkwang Int'l Eng&Con. Ltd.)설립
- 2006.4월 3 Tower 빌딩(2억1천만불), Sonangol Research 빌딩(7천1백만불) 신축공사 수주
- 2007.2월 인터콘티넨탈 호텔(2억2천만불), Talatona 컨벤션 호텔(2억6천만불) 신축공사 수주
- 2008.6월 Soyo LNG 탱크 공사(2억1천만불) 수주
- 2009.1월 Soyo LNG 부지 공사(6천8백만불) 수주

다. 투자현황

» 2018년까지 對앙골라 투자는 총 신고건수 17건, 총 신고금액은 약 8,742만불로 매우 미미한 수준

라. 개발협력 현황

» 앙골라는 아프리카 국가 중 6위에 해당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수혜국으로, 1987년 이후, 한국은 총 2억 6백만 달러 규모의 ODA를 앙골라에 지원

» 무상원조

- 1991-2018년간 아래 무상원조 사업 실시

사업형태	사업내용(총 사업기간/사업규모)
프로젝트	외교부 전산망 개선사업('07 / 6.9만 불)
	앙골라 교사양성기관 및 직업훈련원 건립사업('09-'12 / 324만불)
	앙골라 수산자원 조성기술 역량강화사업('11-'18/600만불)
	앙골라 교사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문해교육 2차사업('16-'18/260만불)
물자지원	9건(100만 불)
긴급원조	1건(3만 불)
기술협력사업	국내초청연수 38명(38.3만불)
민간단체사업	HIV/AIDS 예방활동 및 인식증진 프로젝트('07)
	HIV/AIDS 예방활동 및 인식증진 프로젝트('08)
국제기구협력사업	UNICEF를 통한 남동아프리카 5세 이하 아동보건사업(70만 불)

유상원조

- 1990-2019년간 총 8건 승인

사업명	승인연도	승인액(백만불)	추진단계
어선건조사업	'98	9.5	완공
농업현대화사업	'05	31.4	완공
국가정보처리센터 구축사업	'06	35	완공
영양개선사업	'07	49	완공
농업현대화사업(보충융자)	'10	18.5	사업진행 중
산업고등기술센터 건립사업	'10	34.8	사업진행 중
치안강화사업	'10	44	사업진행 중
어류가공시설 및 냉동창고 건설	'18	59	사업진행 중
총 8건		281.2	



António Agostinho Neto
앙골라 초대 대통령 기념관(루안다 시내 소재)



무명용사 추모비(루안다 시내 소재)



군사

1. 군사개요 92

VI
군사



1 | 개 요

» 군 조직[1]

- 앙골라 육군[2](Exército angolano) : 10만명
- 앙골라 해군(MGA; Marinha de Guerra Angola) : 1천명
- 앙골라 공군(Força Aérea Nacional(FAN)) : 6천명
- 앙골라 준군사 부대(Forca Paramilitar) : 1만명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6)

» 국방정책

- 앙골라 군은 국토방위와 주권을 수호해야 할 의무[3]

1) 대통령 경호실 소속 Casa Militar는 정규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군체제로 운영되고 이들은 일반 군인들의 5배가 넘는 봉급을 받음

2) 앙골라군(FAA;Forças Armadas Angolanas)은 육군/해군/공군으로 구성

3) 1998년 콩고, 1999~2003년 민주콩고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적이 있으나 이때에도 UNITA를 지원했던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단절시키는 것이 주목적

- 2002년 내전 종식 후 전후복구 재건사업[4]에 총역량을 기울이며 지역 평화유지활동 등 군사개입을 최대한 자제[5]

» 병역의무

- 20~45세 사이 앙골라 남성은 병역 의무(복무기간 2년)

» 병력 동원 가능 연령대 진입 연간 인구 현황('10 추정치)

- 남자 : 155,476
- 여자 : 152,054

» 국방비 지출

- 조사 대상국가 150개국 중 60위(19억 8천 4백만 달러) ('18기준, The World Bank Data 2018)
- GDP의 1.78%('18기준)

» 앙골라 육군(FAA)의 최고사령관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은 군통수권 행사 및 군 인사권 보유

» 대통령 아래 국방장관,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으로 구성

4) 1,600㎞에 달하는 해안선을 방어하기에는 앙골라 해군 병력과 장비가 취약하기 때문에 해상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 협력 추진 중

5) SADC와 정례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역내 국가들과 국방공조체제 강화 노력





사회·문화

1. 종족 094
2. 언어 094
3. 종교 095
4. 보건 095
5. 교통 096
6. 언론 098
7. 관광 100
8. 스포츠 103
9. 소득분포 104
10. 공식 국경일 105

VII
사회·문화

1 | 종족

» 앙골라는 Ovimbundu, Kimbundu, Bakongo, Lunda-Chokwe, Nganguels, Nyaneka, Humbe, Ovambo 등 90여개의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
- 최대 부족은 내륙 중앙 및 북부 고지대에 거주하는 Ovimbundu(약 37%), 수도 루안다 등 북부 및 북서부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Kimbundu(약 25%), Bakongo 13%, 혼혈 Mestizo 3~5%

2 | 언어

» 포르투갈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며 Ovimbundu 족은 Umbundu, Kimbundu 족은 Kimbundu, Bakongo 족은 Kikongo, Chokwe족은 Chokwe를 각기 사용

» 일부에서는 앙골라 민족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며 포르투갈어 대신 고유의 종족 언어인 반투어를 사용하고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
- TV 및 라디오 등 공영방송에서 반투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방영하는 등 중장기적 차원에서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 전개

3 | 종교

» 포르투갈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카톨릭(약 41%)과 개신교(약 38%)가 다수이나 샤머니즘 등 토착, 민간신앙이 공존

4 | 보건

» 오랜 내전으로 인해 병원 시설의 60%가 파괴되는 등 기본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말라리아, HIV/AIDS 등 발생률이 아프리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내전 종식 후 앙골라 정부의 노력과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들의 지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개선중
- 특히, UN 후원 하에 모기장 보급 운동이 상당한 성과를 보였으며 국제기구 및 미국, 영국 등 대인지뢰 제거작업과 더불어 말라리아 및 AIDS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요인으로 작용
- 내전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에서 가장 높은 편인 20%에 달했던 영아 사망률과 출산 중 임산부 사망 비율도 현격히 개선

» 오랜 내전으로 사상자가 150만 명에 달하고 기대 수명이 약 46.7세('02 기준)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기준 63.4세(잠정)로 개선

» 인구 1,000명당 의사가 0.21명('17년 기준)으로 의료진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며, 정부의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의 2.9%('16년 기준)로 매우 낮은 수준[1]
- 이같은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2015년 12월~2016년 8월 황열병 발병으로 총 369명이 사망

» 2014-2020년 국가차원으로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홍역 예방주사 실시하여 홍역 퇴치에 집중

» 2015년 - 2018년 간 평균 3.3%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며 사하라 남부지역 국가('18, 2.7%) 48개국 중 5번째로 높은 인구 증가 추세

» 로렌쑤 행정부는 UN 2030 의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인 기아퇴치, 식량안보, 영양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장려를 통한 공중 보건 개선 및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의 복지 증진 목표 달성을 위해 빈곤퇴치·빈곤층 직접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인구 건강 수준 및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추진 중

5 | 교육

» 약 30년간 지속된 내전은 교육 및 기타 사회기반시설을 파괴했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상황이 열악하며, 교사의 이탈로 인해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도 부족
- 내전기간 중 1,300여개의 학교와 16개의 직업훈련학교가 파괴
- 대다수의 교사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으며 적합한 보수 미지급. 교사 부족으로 교사 한명 당 과도한 업무가 부여
- 자격을 갖춘 교사의 부족은 직접적인 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

1) CIA World Factbook

» 지난 10년 동안 앙골라 정부가 초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초등교육에 등록한 학생의 수는 2004년 220만 명에서 2016년 1천만 명으로 4배 이상 증가[2]
- 1979년 말 초등교육(6세-11세) 무상 의무교육제 도입 실시
- 의무교육기간은 9년이며, 처음 취학 나이는 만 6세
- 학제는 6-3-3로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제1과정 3년(7학년-9학년), 중등교육 제2과정 3년(10학년-12학년)으로 이루어지며 대학교육은 4년제가 보편적

» 1975년 독립당시 성인 문맹율이 85%를 상회하였으나, 1985년 64%, 2007년 33%, 2010년 29.9%, 2017년 25%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정부에서 10개년 문맹퇴치 계획을 수립, 문맹율을 10% 미만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 '14년 기준으로 성인(15세 이상)의 문해율은 66%(남성 79.9%, 여성 53.4%)로 높은 수준[3]

» 앙골라는 2001년 이래로 교사 양성 시스템의 견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격을 갖춘 교사의 공급 차질
- 2005년에 약 5만 명의 교사가 새로 임용되었으나, 이들 중 다수는 일반교육과정을 8년도 채 이수하지 못했으며 단 몇 주 간의 교사 연수 후 고용
- 각 교육과정에 배치된 교사 중, 자격미달 교사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초등교육의 경우는 2010-2018년간 교사양성 과정을 거친 교사가 47%에 불과하며[4],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교사도 다수
- 농촌지방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여 도농 간의 격차가 심각

2) World Bank, Angola – Systematic Country Diagnostic : Creating Assets for the Poor, Dec. 2018. p.36
3)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Angola https://uis.unesco.org/en/country/ao (검색일: 2020.02.23.)
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9, UNDP

6 | 언 론

가. 언론 현황

(1) 일간지

» Jornal de Angola : 유일한 정부 발행지

(2) 정기간행물

» O Pais, Semanario Angolense, Novo Jornal, Agora, Folha 8, A Capital, Angolense 등 주간지가 있으나 판매부수가 적은 편

» 경제 전문지 : Expansão

(3) 언론사

» ANGOP(국영 통신) : 포르투갈어 페이지를 기반으로 영문/스페인어/프랑스어판 제공

» AngoNoticias : 포르투갈어 기반 뉴스 사이트

» AFP, Reuters, ADN(독일), ITAR-TASS(러시아), IPS(이탈리아), Prensa Latina(쿠바), RIA-Vesti(러시아), 신화사(중국) 등

(4) 라디오 및 TV

» Rádio Nacional de Angola(RNA) : 국영 라디오방송으로 유일하게 Bantu와 같은 원주민 언어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국 방송이 가능

» Radio Ecclesia : 카톨릭계 방송으로 정부 비판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FM 방식으로 루안다 지역에서만 청취 가능

» Luanda-Antena Comercial: 루안다 지역 라디오방송

» Radio Mais: Luanda, Huambo, Benguela 지역 라디오방송

» Radio Despertar : UNITA 대변 라디오방송

» Radio Morena : 벵겔라 지역방송

» Televisão Popular de Angola(TPA1, TPA2) : 국영 TV

» TV Zimbo : 최근에 창설된 민영 케이블 방송

» Palanca TV : 2015년 새로 생긴 TV 방송국으로 남아공 위성 가입 TV 공급자인 DStv로 방송 시작

나. 언론 정책

» 1976년 언론 국유화 조치

» 앙골라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나, Freedom House는 앙골라 정부가

반정부 시위와 부패를 다루는 기자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발표

» 2009.3월 베네딕트 교황 방문시 사제단에서 정부 비판성향을 띠고 있는 Radio Ecclesia(가톨릭계 방송)을 전국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초단파 방식에서 단파방식으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거절

» 야당 UNITA는 2008년 및 2017년 총선 참패 요인으로 일방적으로 집권여당(MPLA)만을 홍보하는 방송 및 언론의 불공정성 등을 지적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

» 2018.7월 앙골라 법원은 국가 모욕죄로 기소된 MakaAgola 웹사이트 운영 언론인에 대해 무죄를 선언하는 등 언론 자유화를 보장하기 위한 변화 시도 중

» 2019.5.3 앙골라 방송통신부는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언론의 자유화[5]를 위한 명백한 진전"을 주제로 개최한 기념행사에서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발표한 2019년 앙골라의 언론자유지수는 180개국 중 109위(34.96점)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는 2017.9월 신정부 출범이래 공공정보의 개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언급

7 | 관광

» 약 1,600km에 달하는 대서양 해안선을 따라 수많은 섬들과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져 있고 일년내내 해변으로 갈 수 있는 기후대지만, 실제로는 건기에 주로 관광객들이 방문

- 대표적인 해변으로는 루안다의 Mussulo, Palmeirinhas, Corimba, Santiago, Benguela의 Morena, Restinga, Caóta, Caotina, Baia Azul, Baia Farta 등



△ Ilha do Mussulo



△ Benguela, Baia Azul

» 최북단의 카빈다(Cabinda)는 독특한 나무들과 고릴라들의 천연 서식지인 열대우림이 유명하고 남단 Namibe 사막에서는 Welwitshia Mirabilis이라는 세계 유일의 식물이 존재하는 등 지역별 기후적 특색이 달라 다양한 동식물이 분포



△ Namibia, Welwitshia Mirabilis

- 북부는 열대성 기후로 연중 고온다습하여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아프리카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마이옴베 열대우림(Mayombe rainforest)가 자리해 있으며, 10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주 폭포와 400m에 이르는 넓은 절벽을 따라 떨어지는 웅장한 카란둘라 폭포(Kalandula Falls)가 위치



△ Angola, Kalandula Fall

- 내륙으로 들어가면 고도가 상승하며 국토의 60%를 차지하는 1,000-1,500m 높이의 거대한 서남아프리카 고원지대와 연결되며 자이르(Zaire), 콴자(Cuanza), 쿠네느(Cunene), 쿠반구(Cubango), 케브(Kueve) 강 등이 동 고원지대에서 발원

5) 2018년 앙골라의 언론자유지수는 121위(38.35점)

» 로렌쑤 대통령은 2017.9.26 실시된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재임기간 중 박물관, 기념비 및 유적지 건립을 장려함으로써 앙골라의 역사/문화유산을 통합하고 이를 통한 관광 산업 진흥을 추구하겠다고 발표

» 2017.7.2-12간 폴란드에서 개최된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Zaire주 소재 Mbanza Congo 역사도시(옛 콩고왕국 유적)가 앙골라 제1호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로렌쑤 대통령은 향후 Cuanza Corridor, Tchitundo-Hulo, Cuito Cuanavale 지역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 Mbanza Kongo

- 앙골라 관광부는 2019.5.23-25간 「2019 세계관광포럼(World Tourism Forum)」을 개최하였는바, 동 포럼에는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을 포함,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前프랑스대통령, Jack Straw 前영국외무장관, Bulut Bagci 세계관광포럼집행이사회의장, Ken Livingstone 前영국런던 시장 등이 참석하여 앙골라 관광자원 개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취임 이래 로렌쑤 대통령은 ① 대통령배 골프대회 최초 개최(2019.5), ② 앙골라 최초 세계문화유산 음반자 콩코(Mbanza Kongo) 유적지 관광 개발, ③ 앙골라 단기방문(관광)비자 간소화 정책 시행, ④ 아프리카 동·서부 횡단 관광 열차 공동 운행, ⑤ 오카방고-잠베지강 통합보전지구 프로젝트[6] 등 관광 진흥 정책 지속 추진 중

6) 보츠와나, 앙골라,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남부 5개국을 따라 Cuando 강과 Zambezi강 유역으로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자연보전지역으로서, 아프리카 5개 국가간 관광지 공동 개발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SADC(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국가간 국경 지역 관광 개발 이니셔티브 추진을 목적으로 시행

» 잠재적인 관광자원 개발 가능성은 다대하나, 오랜 내전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대인지뢰가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지역이 남아 있으며 호텔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이 빈약하여 관광사업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8 | 스포츠

가. 농구

» 앙골라 농구는 2019 FIBA 농구 월드컵 당시 32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강팀

-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첫 출전 이후 총 4번의 올림픽에서 총 전적 3승 23패
- 농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앙골라 농구의 발전 속도는 상당

나. 축구

» 2006 독일월드컵 본선 진출국 가운데 FIFA 랭킹이 가장 낮았던 앙골라는 월드컵 본선 진출이 고작 1회(2006)에 불과할 정도로 근래에 들어 새롭게 세계 축구계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지역예선에서 아프리카 축구의 맹주로 알려진 나이지리아와 6승 3무 1패로 동률을 이뤘을 정도로 아프리카 대륙의 신흥 강호임을 자부하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7]

7) 2010 네이션스 컵(African Nations Cup)개최
- CAN 2010(2010.1.10~1.30)으로 명명된 네이션스 컵(영어 The Africa Cup of Nations; 포어 O Campeonato Africano de Nações, 포어 약칭 CAN)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자웅을 가리는 대회로 매 2년마다 개최되고 우승국(이집트)은 유로 대회, 아시안컵, 골드컵, 코파 아메리카 우승국과 마찬가지로 대륙간 컵인 컨페더레이션 컵에 진출

- 루안다, 벵겔라, 카빈다, 루안다 등 모두 4개 도시에서 진행되었으며, 앙골라는 10억불 상당의 예산을 들여 개막 경기와 결승전이 열린 4만석 규모의 루안다 경기장 및 2만 5천석 규모의 경기장 3곳을 건설

9 | 소득 분포

» 소득 불균형 심각(2010-2017)

- 상위 소득의 10%가 전체 소비의 32.3% 지출
- 하위 소득의 40%가 전체 소비의 15% 지출
- 앙골라의 지니계수는 2000년 58.64로 높았으나, 42.7(2010-2017)로 점진적으로 개선[8)]

» 2019년 자료에 의하면, 2007-2017간 총 인구의 30.1%가 $1.90/1일 미만으로 생활[9)]

» UNDP 인간개발지수(HDI) 조사 결과, '03년 177개 조사국 가운데 160위로 최하위 수준이나 이는 내전 종료 직후 실시된 조사로 최근 수년간 정부 차원의 노력 하에 연간 HDI 상승률은 2.63%(2000-2010), 1.5%(2010-2018)를 각각 기록하면서, '18년 189개국 중 149위(0.574) 기록

8) Human Development Report 2019, UNDP
9) Human Development Report 2019, UNDP

10 | 공식 국경일

» 01. 01 신년
» 02. 04 무장투쟁 개시일
» 02. 25 카니발('20 기준, 매년 변경 가능)
» 03. 08 국제 여성의 날
» 03. 23 남부아프리카 해방의 날[10)]
» 04. 04 평화의 날
» 04. 10 성 금요일
» 05. 01 노동절
» 09. 17 국가 영웅의 날(Neto 초대 대통령 탄생일)
» 11. 02 망자의 날
» 11. 11 독립기념일
» 12. 25 가정의 날(크리스마스)

10) Lourenco 대통령은 취임 이후 Cuito Cuanavale* 전투 영웅을 기리고 남부아프리카 해방을 이뤄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Cuito Cuanavale 전투가 있었던 3.23일을 남부아프리카 해방의 날로 지정





한국과의 관계

1. 대한반도 정책 108

2. 한국과의 관계 109

3. 교민 및 생활 안내 115

VIII
한국과의 관계

1 | 대한반도 정책

»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여 북한의 군사지원을 받아온 앙골라 정부는 친북한 정책을 견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수교 제의를 거부하다가 1992.1.6 수교

» 앙골라가 동서 냉전종식 이후 실리추구 외교정책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와 수교한 것은 우리의 경제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 지위 향상을 인정한 결과

» 앙골라는 한국을 경제협력의 좋은 파트너로 생각하고 양국간 협력관계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는 남북한과 공히 우호적인 관계 견지

» 로렌쑤 대통령(2017.9.26. 취임)은 제3대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지역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앙골라의 외교적 위상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앙골라의 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외교에도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앙골라의 12개 중요 파트너 국가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일본,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을 언급

2 | 한국과의 관계

가. 외교관계

» 우리 정부는 앙골라 정부와 외교관계 수립을 오래전부터 시도하였으나, 앙골라 정부의 친북정책으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1991.5월말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과 미국의 지원을 받던 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합(UNITA)간의 휴전이 성립된 후인 1992.1.6에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주 앙골라 대한민국 대사관]

1992.01.06 ~ 1994.12.31	주 나미비아 대사관이 겸임
1995.01.01 ~ 1998.09.01	주 잠비아 대사관이 겸임
1998.09.02 ~ 2001.09.20	주 짐바브웨 대사관이 겸임
2001.09.21 ~ 07. 07	주 남아공 대사관이 겸임
2007.07.19	주 앙골라 대사관 개설
2007.12.19	한재영 초대대사 부임(2008.2.25 신임장 제정)
2011.03.27	오한구 대사 부임(2011.3.31 신임장 제정)
2014.04	이경렬 대사 부임(2014.7.18 신임장 제정)
2016.05	김동찬 대사 부임(2016.6.9 신임장 제정)
2019.07	김창식 대사 부임(2019.7.11 신임장 제정)

[주한 대한민국 대사관]

1992.01.06 ~ 2000.12월	주 인도 대사관이 겸임
2001.01월	주 일본 대사관이 겸임
2005.06월	주한 앙골라 연락사무소 개설(사무소장 : Alfredo Dombe 참사관)
2008.08월	주한연락사무소 대사관 승격(대사대리 : Alfredo Dombe 참사관)
2011.11.07	알비누 말룬구(Albino Malungo) 초대대사 신임장 제정
2019.11.14	에드가 마르틴스(Edgar Agusto Martins)대사 신임장 제정

» 명예영사

- 주한 앙골라 명예영사 : 없음
- 주앙골라 한국 명예영사[1] : 자이미 프레이타스(Jaime Freitas)(03.5.19 임명)

나. 주요인사 교류

[앙골라 방문]

1981.06	민간경제사절단(단장 : 이기주 경제국장)
1985.05,07월	대우 김우중 회장, 앙골라
1987.05.18~22	루안다 개최 유엔 나미비아 위원회 한국대표단 참석(단장 최동진 주케냐 대사)
1990.04.24	유종하 외교부차관, 유엔경제특총시 Van-Dunem 외무장관 면담, 양국관계 개선 협의
1991.12.24	송학원 주 나미비아 대사, 국교수립차 방문, 의정서 서명
1993.02	송학원 대사, 겸임국 신임장 제정
1995.06	김진호 주잠비아 대사, 겸임국 신임장 제정
1995.10	한국 PKO 공병대 198명 파견
1997.10	전용덕 주잠비아 대사, 겸임국 신임장 제정
2000.10.26	정재식 주짐바브웨 대사, 겸임국 신임장 제정
2002.10.29	한화길 주남아공 대사, 겸임국 신임장 제정
2004.05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일행 방문(한-앙골라 경제공동위 및 투자설명회 개최)
2005.3.31	김은수 주남아공대사, 겸임국 신임장 제정
2006.06	아프리카자원협력사절단(단장 : 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
2009.05	아프리카 에너지 협력외교 자원조사단(단장 : 김은석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
2010.01	한승주 월드컵유치위원장
2010.06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2010.12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
2011.03.17~18	아프리카경제협력사절단(단장 :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2012.08	김규현 외교부 차관보
2015.07	신동익 외교부 조정관
2015.07	국회 앙골라 친선협회(이학재, 이찬열, 진선미 의원)
2016.07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2016.09	임성남 외교부 1차관
2017.03	황인무 국방차관
2017.12	방위사업청 대표단
2018.08	한-앙골라 의원친선협회(이혜훈, 김무성, 전현희, 박성종)
2019.08	한-아프리카 의회외교포럼 대표단(이주영, 오제세, 김성찬, 이동섭)
2019.09	제1차 한-아프리카 국민외교사절단(외교부, 한아프리카재단)
2019.11	헌법재판소 대표단

[우리나라 방문]

1981.09	앙골라 국영 수입공사 사절단
1984.06	앙골라 국영석유공사(SONANGOL) 사장
1986.07.25-08.04	앙골라 Fernandes 상공부차관(제1차관보 면담)

1) Dr. Helder Manuel Balca(전 국가정보부 국장, 수산장관의 남편)가 94.6 ~ 99.6간 우리 명예영사로 재직

1988.09 A. Germand 앙골라 NOC 위원장(서울올림픽)
1992.03 Van-Dunem 앙골라 외교부장관
1992.06 Jusino Rernandes 산업부장관
1993.06. Joao Celestion Dias 상공부장관
1994.11 Jardin 수산부장관
1995.11 Neto 앙골라 노동부장관
1997.03 Almeida 국회의장(IPU 총회 참석)
1999.05 Jose Vasconcelos 석유부장관 부부, Manuel Vicente 국영석유공사사장 부부(현대수주 석유시추선 명명식참석차 방한)
1999.11 Ana P. Dos Santos 영부인, Vasconcelos 석유장관, Vicente 국영석유공사사장(대우중공업 수주 유조선 명명식 참석차 방한)
2000.08 Manuel Vicente 국영석유공사사장 부부(대우중공업 수주 유조선 명명식 참석차 방한)
2001.01 J. David 산업부장관, D. Costa 석유부차관 등(대우중공업 수주 유조선 명명식 참석차 방한)
2001.02 Dos Santos 대통령
2001.04 Jardin 수산·환경부장관
2004.03 Virgilio Pereira 도시·환경부장관(제8차 세계환경포럼 고위급회의 참석)
2004.09 Liciano Tavares Ribeirio 우정통신부장관("2004 ITU Telecom Asia" 참석)
2004.09 Costa Aragao 법무부차관(인권증진을 위한 정부 세미나 참석)
2005.03 de Miranda 외교부장관
2006.03 앙골라 투자유치정부대표단(S. Neto 외교부차관, M. Ambroise 지질광물부차관, A. Kopingo 공공업무부 차관, J. Baptista 관광부차관 외 실무수행원등 18명)
2006.10 Desiderio Costa 석유부장관(현대중공업 수주 유조선/FPSO 명명식 참석)
2009.08 Fracisco Carneiro 공공건설부장관(한 · 앙골라 2차 공동위 정부수석대표로 참석)
2010.07 Borges 에너지부차관
2011.01.10 Jose Vasconcelos 석유부장관(대우조선해양 수주 FPSO 명명식 참석차 방한)

2011.8.15 Jose Vasconcelos 석유부장관(대우조선해양 수주 LNG 가스수송선 출범식 참석차 방한)
2011.10 Salviano 국방부차관
2012.05 Chicoti 외교부장관
2012.07 Joaquim 광물부장관, Valente 상공부 장관, Maria 과학기술부 장관(여수박람회 참석차 방한)
2012.07 Ana Paula 대통령 영부인(비공식 방한)
2012.08 Jardim 환경부 장관
2013.06 Luis Kiambata 대통령외교자문관
2013.09 Antonio Paulo 공공행정부 차관
2013.10 Anibal Silva 석유부 차관
2013.10 Andre Neto 선관위원장
2015.04 Silva 에너지 수자원부 차관
2016.02 Sango 해외 정보부장
2016.03 Van Dunem 보훈부장관(국가보훈처와 보훈 협력 협의차 방한)
2016.01 Diogo 국토행정부장관
2016.12 Joao Lourenço 국방장관(현 대통령)
2017.04 Georges Chikoti 외교부장관
2018.05 Victoria Neto 수산부 장관
2018.05 Aia-Eza 재무부 차관
2018. Afonso Carlos Neto 국방 차관
2019.03 Ana Dias Lourenco 대통령 영부인
2019.08 Paula Francisco 환경부 장관
2019.10 João Serafim Kiteculo 육군참모총장
2019.10 Altino Carlos José Dos Santos공군사령관

다. 앙골라 평화유지활동 참여

» 1995.10~96.12 UN의 제3차 앙골라 평화유지단(UNAVEM Ⅲ)에 공병부대(부대장 : 천영택 중령) 198명 파견

- 1995.02 UN안보리는 앙골라의 평화협정 이행 감시를 위해 기존의 제2차 앙골라 평화유지단(UNAVEM Ⅱ)을 확대, 제3차 UNAVEM Ⅲ을 창설

» 대UNITA 유엔 제재 동참

- 1993.09.15 유엔 안보리의 대UNITA 무기 및 석유관련 제품 금수조치 결의(864)에 참여
- 1997.08.28 유엔안보리의 대UNITA 제재 결의(1127)에 따라 98.1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련 특별조치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8-3호)"를 제정, 시행

라. 협정 체결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93.7월 체결, 01.1월 발효)

» 대외협력기금(EDCF) 차관협정(00.2월 체결 및 발효)

»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09.8월 서명, 12.5.25 발효)

» 한-앙골라 보훈협력 양해각서(17.3월 체결)

» 한-앙골라 국방협력 양해각서(17.3월 체결)

3 | 교민 및 생활 안내

가. 교민 현황(2020년 1월 기준)

(1) 재외동포현황 : 총 100여명

» 시민권,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 소지자 : 약 15여명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혜택이 크지 않아 주로 거주증(장기체류증, 1년마다 갱신)을 보유. 이들은 대개 노동허가증을 얻어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장기체류증을 소지하는 형태

» 일반체류자 : 약 62여명

- 상당수가 건설업종에 종사하며 주재국에서 법인사업체를 등록하거나 주재지 · 상사 형태로 진출.
  대부분 주재국에 진출한 회사와 1~2년의 파견근무 형태로 사실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없음[2)]

» 유학생 : 없음

(2) 지역별 교민현황

» 루안다(74명), 벵겔라(1명), 메농그(1명), 카빈다(1명)

2) 대사관 직원 및 가족 : 12명

(3) 진출기업현황

» 아프리카 전체 진출기업의 11.1%를 차지하며 남아공 다음으로 2위('16 기준) (최근 자료 없음)

» 지상사 5개사, 교민기업 22개사 총 27개사

지상사 진출 현황

업종별	주 요 업 체 명
조선	대우조선해양
전기	LG Electronics
에너지	현대글로벌서비스
농기계	대동공업
의료기	㈜삼성의료설비

교민기업 진출 현황

업종별	주 요 업 체 명
무역	KORAN TRADING LDA, 골드쉽핑, 안성
건설	꼬래앙골㈜, 흥인 엔터프라이즈㈜, 이삭건설, E&D, 중원엔지니어링, KWM산업기술, 올드 filtec, 한솔, World Tecnologia, Molan
수산	월드와이드(인터불고)
중개	Kiniur Import, KAFRIO, 콘트레이닝,HB WORLD, Angola Consulting
무역	㈜세겜(다마코), 세르코텍, 콘티트레이딩(GUEST HOUSE), 노바트레이딩, KORAN TRADING LDA
기타	앙코주식회사, ANSUNG

나. 출입국 / 비자

(1) 출입국 절차

» 앙골라 입국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비자,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등이며, 루안다 국제공항의 경우 규모가 작아 입국 심사대를 나오면 바로 수화물 찾는 곳이 위치

» 입국시 통관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2019년 12월부터 세관신고서 작성 의무화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 알코올 40% 이상 주류 1리터 • 와인, 삼페인 또는 테이블 와인 2리터	18세 이상
담배	• 궐연 400 개비 또는 엽연초 500 그램	18세 이상
향수	• 향수 50ml 이내 • 화장수 250ml이내	최대 3개
개인 휴대용 기기	• 핸드폰 최대 3대 • 카메라 최대 1대 • 컴퓨터/노트북 최대 1대 • 테블릿 최대 1대	
기타 품목	• 값이 UCF 16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1 UCF = 88 콴자 * 1600 UCF = 140,800 콴자 (값은 변경 될 수 있음) • 수량이 합리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의 물품(기념품, 의류, 신발 및 보석류)	
면세 한도 금액 (일반 면세 기준)	• 비거주자는 상기 범위의 술, 담배, 향수, 의류, 위생용품 외에 다음과 같은 물품의 반입이 허용 - 카메라와 캠코더 및 이들과 함께 반입하는 합리적 수량의 필름, 테이프, 기타 부속품 - 컴팩트 디스크, 타이프라이터, 레코더, 중고 음반을 포함하는 휴대용 기기 - 중고 휴대용 전화기 - 중고 휴대용 컴퓨터 및 부속품 - 중고 가전제품(텔레비전, 비디오 장치, 사운드 시스템, 스토브, 전자레인지, 냉장고, 식기세척기, 진공 청소기, 건조기, 팬, 히터, 라디오 등)	

외국환 신고 (입출국 기준 동일)	• 아래 해당 사항에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한 경우 입출국시 공항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거주자의 경우 입출국시 10,000 달러 이하의 외화 소지 가능 (18세 미만 거주자의 경우 3,500 달러 이하 소지 가능) - 비거주자의 경우 입출국시 5천 달러 이하의 외화 소지 가능 (18세 미만 비거주자의 경우 1,500 달러 이하 소지 가능) * (공통) 현지화(Kwanza, 표기 AKZ) 5만 콴자 이하의 현금 소지 가능	
의약품/ 식품	• 비거주 여행자는 이러한 물품들을 도착지에서 세관이 발행한 양식에 신고하여야 하며, 출국시까지 보관하여야 함 • 비거주 여행자는 체류 중 개인적으로 필요한 합리적 수량의 물품을 반입할 수 있음	
반입불허 품목	• 유독성·독성물질, 불법마약류, 무기류, 수신기, 다이아몬드, 식물 등	

(2) 예방접종

» 앙골라 입국 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며 출국 2주전에 황열병 예방접종이 필수

(3) 비 자

» 비자 발급(E-visa 발급비 : 120불)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 2장, 컬러사진 2매,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사본, 항공스케줄,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숙박 예약증 또는 초청장, 재정증명서(은행잔고증명서 등)이며 2018년 3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35개 국가에 대해 인터넷[3]을 통한 비자 신청 가능

» 외교관·관용여권은 사증면제협정으로 비자 불필요

3) 사이트 주소: http://www.smevisa.gov.ao/Default.aspx

» 공항외부로 나가는 경우 Transit비자(15일) 필요
- 항공기 연착으로 인해 차항지 비행기를 놓쳤을 경우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 무비자 호텔까지 이동 가능

» 국내 비자 발급처 : 주한 앙골라 대사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1-11
- 전화 : 02)792-8463
- 홈페이지: http://angolaembassy.or.kr/

(4) 출입국 유의사항

» 앙골라는 공항 도착 시 입국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으므로, 앙골라 입국 전에 주한 앙골라대사관을 통해 반드시 방문 비자 등을 미리 발급필요

» 앙골라 입국 후에는 비자, 개인정보지 및 입국도장 면을 복사하여 보관 필요
- 앙골라에서 여권분실 후, 여행증명서(또는 단수여권)를 소지하고 출국하고자 할 때 비자발급 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통 벌금 부과

다. 환 전

(1) 화폐단위

» 앙골라의 통화는 콴자(Kwanza;Kz)이며 동전은 10, 20, 50, 100 콴자가 있으며, 지폐는 100, 500, 1000, 2000, 5000 콴자로 구성



△ 앙골라 화폐단위

(2) 환 율

» US$1=약 Kz 488.01(2020.2 현재)

(3) 환 전

» 앙골라에서는 콴자(Kwanza; 표기: AOA 또는 Kz)를 사용하지만, 일부 호텔 및 식당 등에서 자체 환율에 따른 달러를 사용 가능
신용카드는 대부분의 호텔 및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상점은 결제가 되지 않고, 수수료 및 환율손해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 달러를 현지화로 환전하여 사용하며, 환전은 은행, 환전소 등에서 가능

라. 교통 / 통신

(1) 항 공

» 우리나라에서 앙골라로 가는 직항은 없으며, 제3국을 경유하는 항공편 이용
- 주로 두바이, 아디스아바바, 홍콩, 남아공을 경유하며, 약 20시간 소요
- 이 외에 유럽을 경유해 앙골라에 입국 가능

(2) 승용차 임차/택시

» 공항에 택시가 운행하나 영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호텔, 여행사 또는 렌터카 회사를 통해 자동차를 예약하는 것이 안전
- 또한 단기 체류자의 경우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기사를 고용하는 것을 추천
- 종종 교통 경찰이 차를 세워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무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

(3) 전화 거는 방법

» 앙골라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 서울 시내전화 : 00(국제전화)-82(한국)-2(서울)-전화번호
- 휴대폰 : 00(국제전화)-82(한국)-10(통신사)-전화번호

» 한국에서 앙골라로 전화를 거는 경우
- 앙골라 시내전화 : 001(국제전화)-244(앙골라)-시내 전화번호
- 휴대폰 : 001(국제전화)-244(한국)-휴대폰 번호

마. 호텔 / 식당

(1) 주요 호텔

» 루안다 호텔/게스트 하우스 정보

호텔명	위치	전화	비고
Hotel de Convenções de Talatona - HCTA	Talatona Luanda-Sul	244-226-424-300	5성급 호텔
Hotel Epic Sana	Rua da Missâo	244-222-642-600	5성급 호텔
Hotel Alvalade	Rua Comdt Jika	244-222-620-600	부대시설로 Three Meal Restaurant, Hair Salon 있음 4성급 호텔
Hotel Baia	Avenida Dr. Agostinho Neto	244-222-652-900	4성급 호텔
Hotel Skyna 루안다	Nº29, Av. de Portugal	244-222-670-900 / 244-941-003-082	4성급 호텔

Hotel Presidente	Largo 4 de Fevereiro n 4, Luanda	244-929-730-703	4성급 호텔
Hotel Tropico	Rua da Missão, 103, Luanda	244-222-670-100	부대시설로 Three Meal Restaurant, Hair Salon 있음 4성급 호텔
Hotel Palmeiras	Talatona	244-923-167-220	컨벤션센터(CCTA)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위치 4성급 호텔
Hotel Samba	Rua Samba	244-928-685	4성급 호텔
Hotel Marinha	TRAVESSA MORTALA MOHAMED, ILHA DO CABO, Luanda	244-222-309-399 070 4401 6039	한국 World Wide International사 운영 3성급 호텔 한, 영, 포, 중국어 가능
Hotel Forum	Maianga	244-926-495-008	3성급 호텔
Hotel Diamante	Ingombota	244-222-740-208	3성급 호텔
Hotel Rei Katievala	Ingombota	244-918-806-418	3성급 호텔
Hotel Continental	Rua Ginga, Ingombota, Luanda	244-918-806-418	3성급 호텔
Hotel Ilha Mar	Ilha do Cabo	244-938-814-026	3성급 호텔
Hotel Tivoli	Ingombota	244-923-301-197	3성급 호텔
Hotel IU Talatona	Talatona	244-940-322-500	컨벤션센터(CCTA)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위치 3성급 호텔
Hotel Florenca	Talatona		컨벤션센터(CCTA)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위치 3성급 호텔
Hotel Vila Alice	Vila Alice	244-933-804-518	3성급 호텔
Hotel Chez Wu	Ilha de Luanda	244-923-504-264	2성급 호텔

(2) 주요 식당

» 루안다 소재 주요 식당 정보

식당명	위치	전화	비고
Cais de Quatro	Ilha, Avenida Murtala Mohamed	222-309-430	유럽식 식당으로 해산물 요리
Casa cha do leste(동방)	Rua Principal do Futungo UGP	931-879-996	중국 음식점
Chez Wou	Av. Mortala Mohamed n 50, Ilha de Luanda	222-309-517/583	중국 음식점
Cafe del Mar & Coconuts	Ilha de Luanda	923-581-333	포르투갈식 식당
Lookal Assador	Ilha de Luanda	936-000-021	포르투갈식 식당 (고기요리)
Lookal Marisqueira	Ilha de Luanda	936-000-018	포르투갈식 식당 (해산물 요리)
Esplanada Grill	Av Murtala Mohamed Ilha de Luanda, Luanda Angola	935-114-844	브라질식 식당

바. 여행시 유의사항

(1) 의복준비

» 앙골라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 북반구에 위치한 한국과는 계절이 반대

- 수도 루안다의 경우 건기(5~9월)와 우기(10~4월)로 크게 구분되며 하계(2~3월) 평균기온 28℃, 동계(7월~8월) 평균기온 23℃수준

» 우기의 경우 날씨가 덥기 때문에 주로 여름옷을 준비하되 저녁에는 다소 서늘하고 모기 예방을 위해 긴 소매옷도 함께 준비 필요

- 건기의 경우는 구름이 많고 낮과 저녁 기온 차가 심하며 저녁에는 서늘

(2) 치안/안전

» 앙골라는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로 치안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금품을 노리는 납치 및 강·절도 사건이 수시 발생
- 특히 연말 연시 치안이 크게 악화되므로 외국인의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

» 현지인들은 과거 오랜 기간 동안의 내전으로 인해 총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조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

» 도심의 경우 남아공 등 여타국가와 비교하여 치안이 나쁜 편이 아니나 노상 범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무장강도나 자동차 강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심야에는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주간에도 도로활보는 자제 권고

(3) 식 수

» 수돗물은 식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있어 생수 구입 추천

사. 주요 연락처

(1) 주앙골라 한국 대사관

» 주소 : Condominio Zenith, Torre 1, 3º Andar, Via AL 16, Luanda-sul Talatona, Angola
- 전 화 : 244-222-006-067~8
- 팩 스 : 244-222-006-066
- 이메일 : korembassy_angola@mofa.go.kr

(2) 한인회

» 한인회장 : 김영철 회장(코란트레이딩 사장)
- Tel : 244-912-503-637
- 이메일 : korantradinglda@gmail.com

» 총무 : 이유상 부회장
- Tel : 244-926-849-920

(3) 급행우편

» DHL
- 주소 : Rua Kwamme Nkrumah, n 274/276, 루안다
- Tel : 244-222-395-180
- Fax : 244-222-390-326
- http : www.dhl.co.ao





북한과의 관계

1. 외교관계 128

2. 주요인사 교류 129

3. 협력관계 130

IX

북한과의 관계

1 | 외교관계

» 1976.04 수교이후 친북 정책 견지

» 1977.10 주앙골라 대사관 개설

» 두스 산투스 대통령의 3회에 걸친 방북('81.10, '87.4, '89.10)과 북한의 군사지원 및 경협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유지한 바 있으나, 앙골라 경제 재건에 있어서의 대북한 의존도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

» 1992.01 우리나라와 수교 이후 친북 일변도 정책에서 다소 변화, 남북한에 대한 동시 실리 외교 추진

» 1998.04 주앙골라 대사관 폐쇄(주민주콩고 대사관에서 관할)

» 2013.10 주앙골라 대사관 재개설(김현일 대사)

2 | 주요인사 교류

가. 북한인사 앙골라 방문

1978.02	정준기 부총리
1980.07	허담 외무상
1981.08	노동당 대표단
1982.02	경제사절단
1983.02	김재봉 외교부 부부장
1984.07	경제사절단(단장 : 대외경제 사업부장 정송남)
1986.11.03-04	노동당 대표단(단장 : 당비서 황장엽)(앙골라, 88올림픽 공동개최 지지)
1989.08	경제사절단(단장 : 대외경제사업부장 정송남)
1990.05	박성철 부주석
1994.03.27-04.02	박명구 외교부 부부장
2005.03.29-31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2014.05	경제사절단(단장 : 리명산 무역성 부상)
2015.12	강하국 보건상
2016.08	신홍철 외무성 부상
2016.08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나. 앙골라 인사 방북

1979.06	Jorge 수상
1981.10	Dos Santos 대통령
1984.07	Moura 외무차관(남부아 해방전선 지원 요청)
1986.10.24	경제대표단(단장 : Domingos 농업상)

1987.04.05-15 Dos Santos 대통령, 김일성 75회 생일 참석
1989.10.26-29 Dos Santos 대통령, 제3차 북한 방문

3 | 협력관계

가. 군사협력

» 북한 군사요원 파견(75-84.7) : 230명

» 앙골라 Negage 공군기지에 북한 군사고문요원 주재 등, 앙골라 체류 북한 요원이 한때 3,750여명에 달했다고 추정

» 앙골라 군사요원 초청 훈련(82~84.7) : 60명

» 앙골라내 특수 군사훈련장 건설 및 평양 주변 군사기지에서 앙골라를 포함한 약 5천명의 아프리카군 공격대 훈련(87.1 언론보도)

» 1994.3 박명구 외교 부부장 방문시 우수 장교 육성을 위한 훈련지원 문제 협의

» 1999.2 북한은 스커드형 지대지미사일(frog 7)을 탄자니아를 통해 UNITA측에 판매

» 2009년 양국은 앙골라 기술자의 선박 보수 및 유지 훈련을 계기로, 초계정으로 불리는 해양경비정 판매 계약 체결
- 그 결과 2011년 3월, 앙골라는 북한으로부터 18척에 이르는 해양경비정을 구입. 이후 2013년에는 초계정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

나. 경제협력

» 농업관계 기술자 파견(약 10명)

» 어로지도요원 및 선원 약 40명, 의사 80여명 등을 파견한 바 있으며 현재도 상당수 의사 및 선원 상주
- 보건대표부 주재

» 북한은 앙골라 내전을 이용, 구상무역 조건(석유수입)으로 상당량의 군수 물자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

» 약 180여 명의 의료진과 더불어 1천여 명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 등이 앙골라에 파견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근 유엔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파견노동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 북한 노동자들은 앙골라 평화 기념비와 문화센터 건설 사업, Agostinho Neto 대통령 동상 등 각종 건설사업과 병원 및 현지 보건요원 훈련 등에 참여해 온 것으로 추정

다. 안보리 제재 이행

» 앙골라는 북한의 2017.11.29.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의 일환으로 앙골라내 체류 중이던 북한 노동자 상당수를 송환
- 열악한 의료 환경 및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체류가 묵인되어 오던 의료인력에 대해서도 송환 실시

라. 주요 협정

- 1977.05 과학기술협정
- 1979.08 문화협정
- 1980.12 무역협정
- 1981.10 우호협력 조약
- 1986.10 경제과학기술 및 문화협력의정서



Cuanza Norte州 소재 Cambambe 수력발전소



Malanje州 소재 Kalandula 폭포



참고 사항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136

2. 앙골라 정부 각료 명단 138

3. 상주공관 및 재외공관 현황 139

4. 앙골라 내전 및 평화협상 140

1 | 주요 인사 인적사항

대통령



성 명	**주앙 마누엘 곤살베스 로렌쑤** João Manuel Gonçalves Lourenço
생년월일	1954년 3월 5일(Lobito 출생)
학 력	Benguela 지역 초등학교 졸업 Benguela 지역 중등학교 졸업 舊소련 레닌 군사학교 앙골라 산업학교(Industrial Institute of Luanda)
경 력	[1987~1990] 벵겔라(Benguela) 주지사 [1984~1992] 국회의원 [1992~1997] MPLA당(앙골라 해방운동당) 정보 담당 사무총장 [1998~2003] MPLA당(앙골라 해방운동당) 사무총장 [2003~2014] 앙골라 국회 부의장 [2014] 국방장관 [2017.9] 앙골라 제3대 대통령 선출(17.8월 총선 결과)
가족관계	부인(1957년생, 前세계은행 앙골라 대표)
참고사항	-

외교장관



성 명	**떼뜨 안토니우** Téte António
생년월일	1955년 1월 22일
학 력	미국 컬럼비아 대학 예방외교(2005) 우크라이나 키예프 대학 국제 경제학 석사(1988) 앙골라 Agostinho Neto 대학 경제학 학사(1982)
경 력	[1979-1982] 외교부 근무 [1990-1992] Agostinho Neto 대학 경제학 조교수 [1990-1993] 앙골라 외교부 AU과 및 아프리카·중동국 근무 [1993-1997] 주AU 에티오피아 대사관 근무 [1997-1999] UN의 서사하라 총선지원단 감시 옵서버 [1999-2002] 외교부 차관실 실장 [2003-2004] 주UN대표부 공사 참사관(안보리내 아프리카 현안 조율 담당) * 앙골라는 동 기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역임 [2004-2005] 제59차 UN총회 대통령 자문위원 [2006-2009]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Commission) 담당/차석대사 [2009.4~11] 아프리카연합위원회(AUC) 외교고문 [2009-2017] 주UN AU상주대표 [2017-2020.4] 외교 차관 [2020.4~] 외교 장관
구사언어	포르투갈어
특이사항	• 국제기구에서 아프리카 대표로 수십 년간 근무하여,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아프리카 분쟁해결 방안 관련 서적 집필 • 공식 방한 경험 무

2 | 앙골라 정부 각료 명단

부처	각료성명
Vice-President of the Republic	Bornito de Sousa Baltazar Diogo
Minister of State for Economic coordination	Manuel José Nunes Júnior
Minister of State for Social Area	Carolina Cerqueira
Minister of State and Chief of the House of Security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Pedro Sebastião
Minister of State and Chief of the Civil Hous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Adão Francisco Correia de Almeida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Former Combatants & Motherland Veterans	João Ernesto dos Santos
Minister of Interior	Eugênio César Laborinho
Minister of External Relations	Téte António
Minister of Finance	Vera Esperança dos Santos Daves de Sousa
Minister of Territory Administration and State Reform	Marcy Cláudio Lopes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Teresa Rodrigues Dias
Minister of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ntónio Francisco de Assis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Victor Francisco dos Santos Fernandes
Minister of Energy and Water	João Baptista Borges
Minister of Mineral Resources, Oil and Gas	Diamantino Pedro Azevedo
Minister of Transport	Ricardo Daniel Sandão Queirós Veigas de Abreu
Minister of Public Works and Special Planning	Manuel Tavares de Almeida
Minister of Tele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Social Communication	Manuel Gomes da Conceição Homem
Minister of Economy and Planning	Sérgio de Sousa Mendes dos Santos
Minister of Higher Educati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Maria do Rosário Teixeira de Alva Sequeira Bragança Sambo
Minister of Education	Luísa Maria Alves Grilo
Minister of Health	Sílvia Paula Valentim Lutucuta
Minister of Culture, Tourism and Environment	Adjany da Silva Freitas Costa
Minister of Social Affairs, Family and Women Promotion	Faustina Inglês de Almeida Alves
Minister of Youth & Sports	Ana Paula Sacramento Neto
Minister of Justice and Human Rights	Francisco Manuel Monteiro de Queiroz

※2020.4월 기준

3 | 상주공관 및 재외공관 현황

가. 주 앙골라 외국공관(70개)

유럽(20)	오스트리아(영), 벨기에, 프랑스, 독일, 교황청, 이탈리아, 몰타기사단,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터키, 헝가리, 유럽연합
북미(1)	미국, 캐나다(영), UN 대표부
중남미(4)	쿠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칠레(영), 멕시코(영)
아프리카(20)	알제리, 카보베르데, 콩고, 코트디브아르, 민주콩고, 이집트, 기니, 적도기니, 기니비사우, 가봉, 가나, 말리, 모리타니,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서사하라, 수단, 상투메프린시페, 케냐, 남아공, 잠비아, 짐바브웨, 르완다, 감비아(총영), 세네갈(영)
아시아/중동(8)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호주(영), 아랍에미리트, 필리핀(총영)

※영사관은(영), 총영사관은(총영)으로 표기

※2020.2월 기준

나. 앙골라 재외공관(63개)

유럽(23)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 포르투갈,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EU 대표부, UNESCO 대표부, UN 대표부, OSCE 대표부
북미(3)	미국, UN 대표부
중남미(4)	쿠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총영)
아프리카(20)	알제리,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콩고, 코트디부아르, 민주콩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기니비사우, 적도기니,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케냐,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남아공, 탄자니아, 토고, 잠비아, 짐바브웨
아시아/중동(9)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4 | 앙골라 내전 및 평화협상

» 앙골라 독립이후 야기된 내전에서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에 패배한 3만여 명에 달하는 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합(UNITA) 세력은 남아공의 지원 아래, 앙골라 남부에 거점을 두고 활발한 게릴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정부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역 및 소도시에 대하여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 앙골라 정부는 UNITA와 앙골라 정부와의 협상을 유도하려는 미국의 對UNITA 군사원조에 반발, 두스 산투스 대통령의 방소(86.5)를 통해 소련으로부터의 군사원조를 모색하는 한편, 레이건 미 행정부 등장(81.1) 이래 지속해 온 대미 정부차원의 접촉을 중단

» 1988.12.13 앙골라, 쿠바, 남아공간 서명된 평화협상의정서에 따라, 남아공군과 쿠바군이 단계적으로 철수. 1990년 이후 공산권의 몰락과 나미비아의 독립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미-소간 앙골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의 분위기가 조성, 미-소 양측은 남아공과 함께 MPLA와 UNITA양측에 대해 협상

» 1989.6월 자이르 모부투 대통령의 중재로 MPLA와 UNITA간 Gbadolite 평화협상을 추진했으나, 성과미비

» 1990년 이후, 전 식민종주국인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평화정착 노력이 전개, 1990.4월 포르투갈 Evora에서 MPLA와 UNITA간 제1차 실무 평화협상이 열렸으며, 1990.6월 리스본 근교에서 제2차 협상, 1990.7월 중순에는 제3차 협상이 개최

» 평화협상의 진행으로 1991.5.15 MPLA와 UNITA는 사실상의 휴전에 돌입하였고, 5.25 쿠바군이 본국으로 철수

» 1991.5.31 MPLA와 UNITA는 리스본에서 평화협정에 서명, 1992.8월에는 양측이 선거를 통해 연립정부 수립에 합의

» 1992.9.29 다당제 선거가 실시되어 두스 산투스가 49.6%를 그리고 UINTA의 사빔비는 40.1%를 획득.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220석중 MPLA가 129석(53.7%), UNITA가 70석(34.1%) FNLA 5석(2.4%), 기타 16석(7.3%)을 점유하였으나, Savimbi는 선거 결과에 불복, 1992.10.31 자이레 및 남아공군과 연합, 게릴라 활동을 재개(전국토의 약 70% 점령)

» 미국은 과거의 정책 방향을 수정, 1993.5 MPLA 정부를 정식 승인하였으며,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9.15 반군세력(UNITA) 및 동 점령지역에 대하여 무기 및 석유 관련제품의 금수 조치를 결의(864호)

» 1994.11월 MPLA와 UNITA간 루사카 평화협정[1] 체결(19년간의 냉전 종식)
- 1994.11.22부터 정부-반군간 전면휴전 실시
- UNITA군을 해체, 앙골라군에 편입
- UNITA측에 부통령, 정부 4개부처 장관, 7개부처의 차관, 7개 재외공관장 등 할애
- 1992년 미실시한 대통령 결선투표 실시

» 1995.2월 UN 안보리는 루사카 협정 감독을 위해 앙골라에 평화유지군(UNAVEM Ⅲ) 파견 결의
- 1995.10~1996.12간 UNAVEM Ⅲ에 우리 공병부대 198명 파견

» 1996.1월 UN 주재 미국대사,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두스 산투스 대통령 및 사빔비 반군 지도자와 회담을 개최, 양측에 대해 평화이행 지연에 대한 경고 의사 전달

» 1996.3월 두스 산투스-사빔비간 회담(가봉)에서 1996.6월 통합군 구성 및 1996.7월 연립정부 수립에 합의
- UNITA 반군은 일정지역에 집결, 1997.10월말까지 무장해제 하는 대신 연립정부에 사빔비는 부통령으로 그 외 UNTTA 인사도 각료에 편입키로 합의

» 1996.8월 정부군의 군사훈련과 경제위기 및 부패에 따른 두스 산투스의 강경책에 대해 사빔비는 부통령직 수락 거부, 1997.2월 연립정부 참가를 거부하고 재협상 요구

» 1997.3월 자이르 내전에서 앙골라 정부군이 지원하는 카빌라 반군이 전략적 요충지인 Kamina를 점령하면서 그간 자이르 정부군을 지원해온 UNITA는 고립

» 1997.4.11 자이르 내전에서 카빌라 반군의 사실상 승리에 따라 UNITA가 앙골라 정부의 민족통일/화합연합에 참여, 연합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1997.6월 UN안보리는 UNAVEM Ⅲ를 해체하고, 평화유지감시단(MONUA) 구성

» 1997.5월 앙골라 정부는 카빌라가 모부투 정권을 타도하고 수립된 콩고민주공화국(DRC) 승인

» 1997.10월 UNITA는 자신의 거점이며 다이아몬드 생산지인 Lunda-Norte의 통치권을 앙골라 정부에 이양

» 한편, 1997.10월 콩고공화국(ROC)에서 쿠데타가 발생, 앙골라 정부가 지원하는 응게소 세력이 UNITA반군이 지원하는 리수바 정부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획득함에 따라 UNITA는 주변 지원 세력을 상실, 큰 타격을 받음. 앙골라 정부는 그간 UNITA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진 잠비아에 무기수출 및 군사개입을 금지하도록 경고하는 등 주변국에 강경 대처

» 1998.1월 양측은 루사카협정 의정서의 이행에 합의하고 UNITA는 1998.3.16까지 무장해체키로 하였으나, Lunda-Norte와 Benguela 지역에서는 오히려 긴장 고조

» 1998.7월 UN이 UNITA의 무기수입 등을 규제하기 위해 UNITA의 은행계좌동결, 다이아몬드 수출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조치를 하자, UNITA는 앙골라 정부에 이양한 Lunda-Norte 지역을 재점령함. 이에 앙골라 정부는 8.28한 UNITA의 완전 무장해제와 영토 완전이양을 요구하고 UNITA 각료 및 의원을 파면하고 사빔비의 특별지위 박탈

» 1998.11월 앙골라 각 지역에서 정부군과 UNITA간 충돌, 내전재개가 임박하자 두스 산투스 대통령은 1999.1월 전쟁수행을 위한 특별내각 구성

» 1999.2월 UNITA군이 잠비아, 우간다의 무기 제공 등 측면 지원하에 각 지역에서 전투를 재개

1) Lusaka 평화협정(Lusaka Protocol) 주요 내용

» 1999.2월 MPLA 사무총장은 1995년 이래 연기되어온 대통령 선거를 내전 격화 상황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 발표

» 1999.2월 UN안보리, 앙골라 내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됨에 따라 앙골라 평화유지감시단(MONUA) 철수 결정

» 1999.4월 앙골라, 나미비아, 짐바브웨, DRC 등 4개국은 상호방위협약 체결

» 1999.8월 앙골라 정부, UNITA 세력 축출
- 새로 구성된 UNITA 개혁위원회를 공식적인 UNITA 지도부로 인정, Savimbi 고립화 시도

» 1999.10월 UN안보리, 앙골라내 평화회복방안 모색을 위해 유엔앙골라사무소(UNOA)를 2000.4.15까지 6개월간 설치토록 하는 결의 채택

» 1999.10월 정부군이 UNITA 반군의 주요 거점도시인 Andulo 및 Bailundo를 탈환, 앙골라 남부 국경지역을 거의 장악

» 2000.4월 UN안보리, UNOA 활동기한을 2000.10.15까지 6개월 연장 결의

» 2000.10월 UN안보리, UNOA 활동기한을 2001.4.15까지 6개월 재연장 결의

» 2000년 하반기 정부군이 앙골라 전역의 90%이상 회복

» UNITA 반군은 UN 제재로 인한 외부의 지원 중단후, 다이아몬드 밀매 등을 통한 독자적 재정에 의존, 산발적인 게릴라전을 지속적으로 전개
- 1992년의 4만여 명에서 2001년에는 8천여 명으로 전투력이 급격히 약화

» 2001년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와 유리한 국제환경을 바탕으로 반군에 대해 강경입장을 고수해온 정부측도 게릴라전 상황을 감안, 조속한 내전종식을 위해 UNITA와의 대화 추진 모색

» 2002.2월 UNITA 지도자 Savimbi의 사망후 UNITA 병력의 결정적 약화

» 2002.4월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장기간의 내전상태 종식



2020

앙골라공화국 개황

Republic of Angola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184-14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